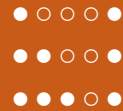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지표로 본
한살림운동

2016년 한살림 지속가능성 보고



1. 왜 지속가능성보고서가 필요한가?

한살림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협동으로 생명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차릴 수 있고,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고 연대하여 만들어진 협동의 경험은 지역 사회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이어진다. 여러 지역에서 조합원을 주축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알리고 확산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친환경급식 운동은 물론 환경, 돌봄, 교육 등 이웃과 더불어 생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는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조합원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농촌에서는 생산자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땅과 물을 살리고, 벌레와 잔짐승이 어울려 사는 크고 작은 생태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물질의 생산-소비-분해-재생이라는 유기적 순환의 고리를 재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살림의 노력은 우리 밥상과 농업을 살리고,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나아가 생명살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과정으로서, 그 성과는 오늘날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향하는 목표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7년 발표된 「우리 모두의 미래」(Our Common Future) 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처음 정의된 이후 1992년 리우 유엔환경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를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2015년 UN의 포스트 2015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이어졌다. SDGs의 주요 내용은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존 세 가지 주제를 이어받아서 ‘사람 people’, ‘지구 planet’, ‘번영 prosperity’, ‘평화 peace’, ‘파트너십 partnership’을 위한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실시되는 ‘인구문제’, ‘기후변화’, ‘양극화’ 라는 과제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SDGs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지구인의 도전과제로서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정부로부터 기업, 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될 것이다.

전 세계 협동조합들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에서 협동조합의 7번째 원칙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추가한 바 있으며, 2013년 발간한 ‘향후 10년을 위한 협동조합의 비전(Blue print for cooperative decade)’ 보고서에서 핵심 과제로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설정하고 각국의 협동조합들에게도 이의 이행을 촉구해 왔다. 최근 ICA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협동조합 사업체의 핵심이다. 이

것은 윤리적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 모델이며, 그 목적은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협동조합이 지속가능성을 이행할 수 있는 주요 조직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터키에서 개최된 44번째 ICA 총회에서는 2016년 협동조합의 날 주제로 “2030을 위한 협동조합: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 발전의 파트너십(Co-op for 2030: A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hip)”을 선정하고 SDGs의 17개 목표에 대응하여 각 협동조합 유형별로 이행 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예시표를 제안한바 있다.

한살림을 포함한 전 세계 협동조합들이 오래전부터 실천해 오고 있는 활동들은 이러한 SDGs의 세부 주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활동 범위가 지역사회 혹은 일부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알려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대규모 협동조합들이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각국의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식회사와의 차별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016년 ICA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 가이드북>을 발간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살림도 SDGs를 포함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사업과 활동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음 십수년간 한살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역할과 참여 요청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은 한살림이 지향하는 세계관 및 활동과도 잘 맞아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물처럼 서로 이어져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못생명을 존중하며 공생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펼쳐온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활동은 앞서 언급한 SDGs의 5가지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기아를 종식하고, 먹거리 안정성과 영양 개선을 달성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목표 2)’하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확립(목표 12)’한다는 목표는 한살림의 지금 활동과도 바로 연결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1년 단위 조직의 사업 결과를 종합하는 총회자료집이나 홍보를 위한 연차보고서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과제의 중장기적 관리와 성과측정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한편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대규모 조직에서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개선하는 도구로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매개로서 활용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초창기와 달리 지난 한 세대 동안 한살림은 조합원 수가 크게 늘어났고 사업 내용은 점차 다양하고 넓어지게 되었다. 조합원 조직의 특성상 조직 규모에 비례해 의사결정 과정도 점점 더 다층적으로 변해 왔고 고려할

변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생명살림 세상이라는 한살림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지표에 근거하여 방대한 사업과 활동의 경험들을 일목요연하게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로서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양적 자료의 장점인 ‘접근의 용이성’은 더 많은 구성원에게 조직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환기하고 구성원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고취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메시지 발신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기초자료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설정된 지표의 대표성과 수집된 자료의 불완전성 문제, 그리고 목적과 수단의 전도라는 계량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한살림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노력은 거꾸로 한살림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한다. 그렇게 보면 그동안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역할에 대한 위상을 환기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조직에서 실천되는 여러 활동들이 한살림의 의제를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도 있다. 또 사회적으로 한살림의 성과를 널리 알려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살림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확산해나가는 접근법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살림의 활동을 이해하고 접근해가는 노력도 함께 고려할 때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심과 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한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정량화, 지표화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체로 많은 조직이 보고서 작성의 의지가 있어도 실행에 옮기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정량화된 자료 확보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살림은 총회 자료집을 충실하게 발간해 오면서 기본적인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제주에서는 사회적회계를 경영시스템에 도입하면서 구성원의 협의 속에 지표를 설정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도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조금만 활용한다면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살림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구성체계와 의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경제, 사회, 환경적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G4 버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여 작성된 지표 목록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 <http://ica.coop/en/post-2015-development-agenda-and-sustainable-development-goals> (2015.11.11 검색)

●● 한살림모임, 1986. 「한살림선언」, 한살림.

여지가 확대됐다.

한살림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활동을 경제, 사회, 환경적 지표로 재구성하였고, 한살림의 특성을 드러내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장을 마련하여 관련 세부 지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구성은 ‘한살림과 지속가능성’, ‘함께 만드는 한살림’, ‘사회적 책임’, ‘생태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은 20개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은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한살림의 주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한살림의 정책이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한살림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와 관련 현황도 소개하고 있다. 또 조직의 목표가 설정된 지표에 대해서는 그 목표와 이행 상황을 표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해서는 세부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구성은 한살림의 궁극적 목표인 밥상살림, 농업살림을 통한 생명살림의 세상을 열어나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관련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한살림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각 지표별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여부와 효과를 점검하고 다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살림의 주요 구성원인 조합원과 생산자, 실무자와 활동가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살림의 사업과 활동을 지속가능성의 눈으로 해석하는 시도이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보편적인 영역들을 한살림에 적용하면서도 한살림이 가진 특수한 영역들은 그것대로 의미를 살려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영역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반적인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이나 외국의 대규모 협동조합들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한살림의 차별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것은 한살림 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현재도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자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농업과 먹거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영역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살림의 사회적 의미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편, 거버넌스(Governance)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살림의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을 검토해본 결과,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 연대 활동’ 등 ‘사회적 책임’ 분야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제 3세계 소농 및 재해를 입은 이웃과의 연대를 위한 실천활동은 결국 한살림이 지향하는 가치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넘어서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과제와 한계 : 우선순위, 비교가능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살림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활동을 어떻게 점검하고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떠나지 않는 주제였다. 기존의 문헌 자료와 실천 내용을 종합해보면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 분명한 목표이자 과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은 사실상 동전의 앞뒷면과 같으며, 생명살림은 이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과제다. 그리고 이들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닌 연결된 과제이며, 한살림의 사업과 활동을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바라보는 잣대이기도 하다. 모든 주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없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구분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라는 칸에 각각의 활동을 채워 넣는 것보다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를 협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한 뒤, 그 성과와 효과를 측정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는 아쉽게도 비전과 우선순위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프로젝트 팀 수준에서의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정리하였다. 만약 개별 조직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다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소개하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큰 틀의 프레임을 구성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살림의 활동을 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검토와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살림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유엔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로서의 보편성 또한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자료의 비교가능성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한살림만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합원과 사회에도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지표에 대한 충분한 해석과 함께 이미 개발된 관련 분야의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노동 관련 현황에서 실무자와 활동가라는 구분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를 내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가 없으면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비교 가능성 또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와 관련한 성과보고서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 보고서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규모 주식회사들이 이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실패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그것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물론 많은 지표들이 개별 조직의 입장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조직이 관련된 지표에 대한 관심이 적을 때 입게 되는 리스크가 크다면 그것은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살림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번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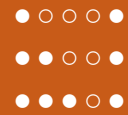
삼아서 실제로 적용할 때 참고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살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지표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되고 있으나 거버넌스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협동조직에서 거버넌스는 조직 운영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지속가능성의 실현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조직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실무자와 활동가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운영하는 조직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지표를 만들고 가능한 한 질적인 깊이도 더한다면 거버넌스와 관련된 리스크를 조금은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인식 제고로부터 정기적인 의견수렴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포함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모두 예방할 수는 없지만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빠른 사후 대처로 피해 완화는 가능하다.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의 의미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모심과살림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보고서에 제시된 지속가능성 지표와 해당 내용은 한살림 이사회와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결과물이 아니다. 다만 이 보고서가 참고가 되어 이후 각 조직에서 지속가능성 지표와 보고서 작성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적용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발간 목적이 있다. 관심 있는 조직에서 실무적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려면 가장 먼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또는 팀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이해관계자의 식별, 중대성 이슈 도출, 기존 지표 가이드라인의 검토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틀을 준비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속에서 지표를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





지속가능성
지표로 본
한살림운동





지속가능성 지표로 본 한살림운동

보고원칙 GRI G4 가이드라인
보고범위 한살림 회원 조직
보고기준 회계연도 기준, 일부 성과는 최근 3년간 자료 제시
보고기간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한살림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인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01. 한살림과 지속가능성

한살림, 그리고 지속가능성	16
한살림의 지속가능성 성과	18

02. 함께 만드는 한살림

협동적 조직운영	20
한살림의 이해관계자	27
조합원	31
생산자	36
실무자·활동가	40
지역사회	45

03.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돌봄활동	48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54
건강한 식문화 확산	57
지구촌 생명살림	62

04. 생태적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증진	66
온실가스 감축	70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74
생활실천 운동	77

05.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80
생산-소비 협력형 자주관리	84
물품 안전성 관리	88
곡물자급률 향상 노력	91

06. 부록

재무제표	96
GRI G4 인덱스	104
기타	108

한살림운동의 지향

우리는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을 공경할 때 자기다움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모시고 공경하듯 다른 사람의 거룩한 생명도 공경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을 내 몸처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통해 어린 생명이 길러지듯

우주의 젖인 안전한 밥상을 통해 인간의 생명은 길러집니다.

그래서 식량생산의 터전인 땅과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삶의 문화를 일구어 생명살림을 펼쳐나갑니다.

우리는 지역의 이웃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무관심과 소외가 만연된 우리 삶에서 이웃 간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살림의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는 우주 생명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에 책임지고자 합니다.

생명의 근본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도랑을 흐르는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나부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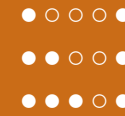
한살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넓혀 나감으로써 우리의 이웃과 자연 만물,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보살피며 돕는 운동입니다.

나부터 삶의 가치와 생활양식의 올바른 전환을 통한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지역과 이웃을 함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한살림운동의 지향’은 조합원들이 한살림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한살림선언’의 내용을 정리하여 200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한살림 총회나 행사 등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인 것을, 달이 나이고 해가 나이거늘, 분명 그대는 나일세“

- 무위당 장일순 -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무엇을 먹는가는 내가 사는 세상과 결코 별개의 문제일 수 없고, 내가 먹는 것이 거꾸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생산과 소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의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차리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개인과 가족을 넘어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미래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행복, 그리고 생태계의 균형적 진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온전한 밥 한 그릇을 준비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01.

한살림과 지속가능성



((한살림, 그리고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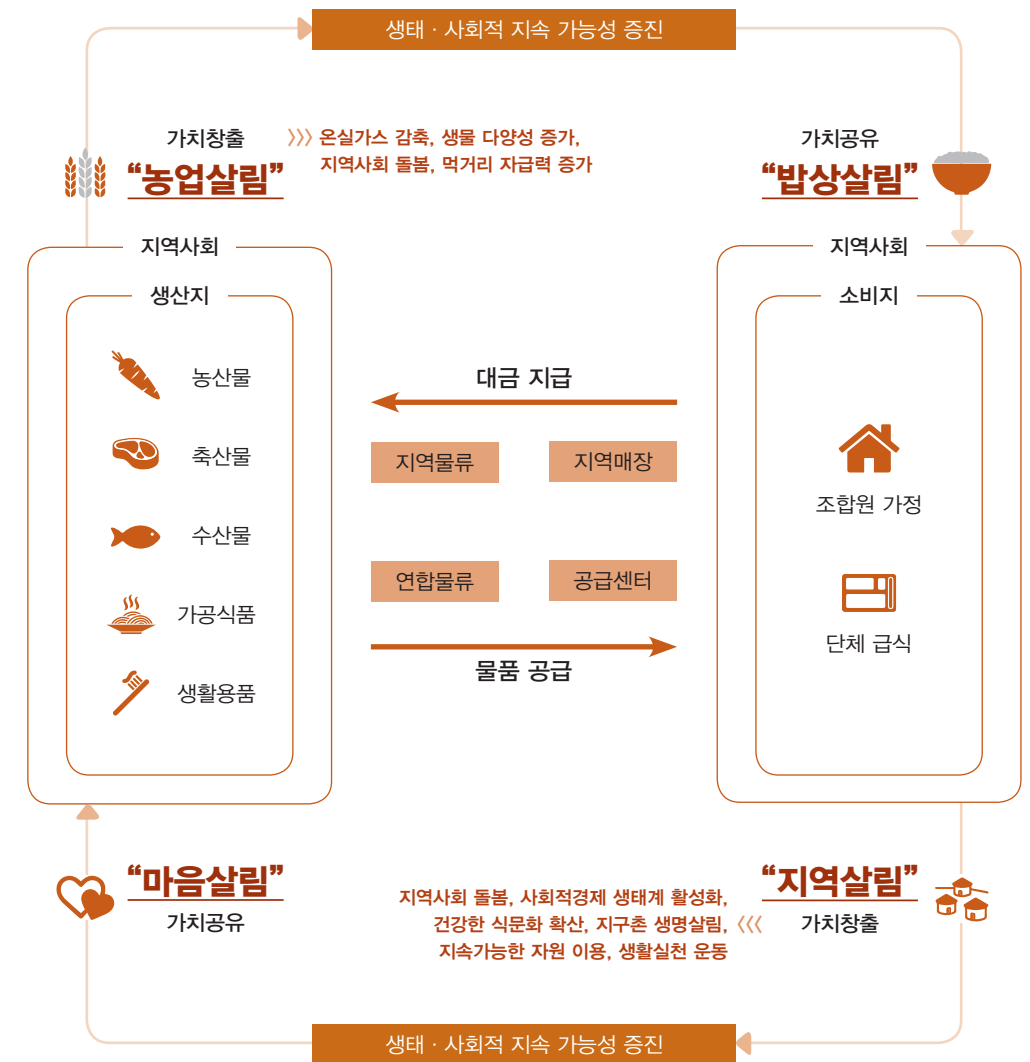
■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농사짓고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들과 이들의 마음이 담긴 물품을 이해하고 믿으며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함께 결성한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으로부터 출발하는 한살림은 우리 밥상과 농업을 살리고 나아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문화를 통해 생명살림의 세상을 꿈꾸고 실천합니다.



■ 한살림과 지속가능성

한살림의 실천은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조합원이 지불하는 물품 대금은 생산자의 생활과 건강한 생산을 지속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 생산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조합원 가정의 건강을 가져오며, 이를 확산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조합원들의 힘으로 지역 사회를 한층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유·무형의 가치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며, 이 모든 것은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 모두가 함께 살자는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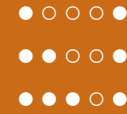
<한살림의 지속가능성 모델>

((한살림의 지속가능성 성과))



2016년 한살림의 지속가능성 성과는 무엇인가요?

경제	사회	환경	농업
조합원 60만 세대	지역사회 행복기금 3,600만원	생물 다양성 증진 27만평 공급	친환경농업 실천 4,300헥타르
고용 3,899명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118개 조직과 협력	온실가스 저감량 8,527톤CO2e/yr	도농교류 14,720회
공급액 3,965억원	식생활교육 참가자 22,098명	자원 절약(병 재사용) 78.1톤	안정기금 11.5억원
출자금 584억원	지구촌 생명나눔 기부금액 3,300만원	자금률 향상 사료자금률 30.4%	



한살림은 조합원, 생산자, 실무자·활동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나 하면
 한 쪽만 보기 때문에 벌어진다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소비자인데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또 소비자가 없으면 농사꾼이 생산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저게 없고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우주의 모든 질서는
 사회적인 조건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홀대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 무위당 장일순 잠언집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중에서



02. 함께 만드는 한살림



((협동적 조직운영))

한살림연합회는 전국 60만 세대의 조합원과 2,150세대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한살림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구호 아래 창립부터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2016년 현재 전국 22개 회원 조직의 약 60만 세대 조합원과 2,150세대 생산자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 설립한 한살림연합회는 전체 한살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전국 차원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연합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연 1회 열리는 대의원총회로서 각 조직으로부터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한살림의 주요 사업과 정책, 임원변경 사항 등을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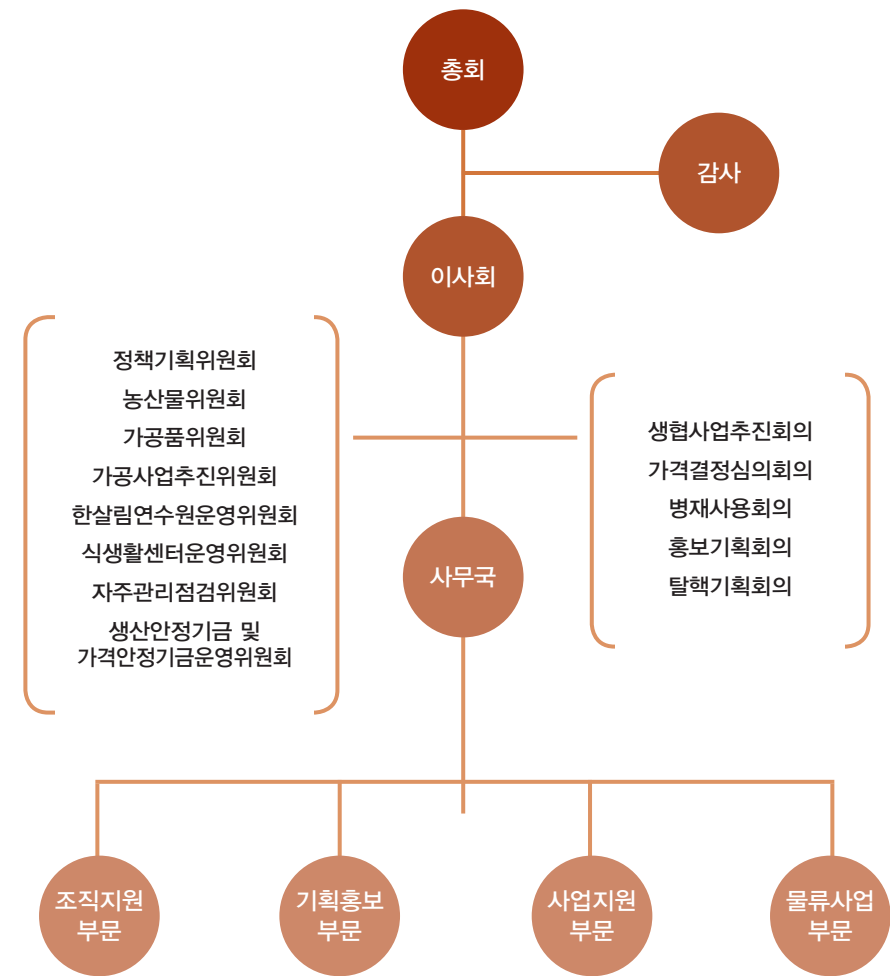
한살림연합의 일상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월 1회 이사회가 운영되며, 구성원은 총 31명으로, 22명의 회원 생협 이사장과 5명의 생산자회원 대표, 2명의 지원조직 대표, 그리고 한살림연합의 대표와 전무이사가 참여합니다.

감사는 한살림 내부와 외부에서 각 1인씩 2인으로 구성되며, 회계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외부 회계 전문가를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사회를 보좌하여 물품정책을 논의하고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안을 결정하는 생협사업추진회의를 비롯하여 가격결정심의, 병재사용, 홍보기획, 탈핵기획의 5개 회의체와 정책기획, 농산물, 가공품, 가공사업추진, 한살림연수원운영, 식생활센터운영, 자주관리점검, 생산안정기금 및 가격안정기금 운영에 관한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논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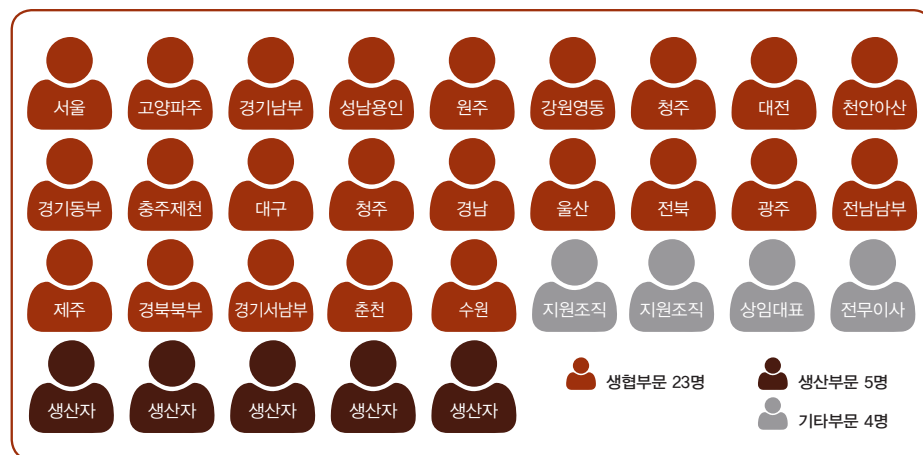
■ 한살림연합 조직도¹⁾



1) 2016년말 기준.

■ 이사회

이사 총 32명



- | 상임대표 :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연합회를 대표함.
- | 전무이사 : 상임대표를 보좌하고 실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일상 업무를 총괄 집행함.

〈한살림연합회 이사, 대의원, 조직 및 조직별 조합원 수〉²⁾

구분	생협부문	생산부문	기타부문
이사수	23명	5명	4명
대의원수	191명	22명	7명
조직수	23개	19개	2개
조합원수	조합원 596,240세대	생산자 2,150세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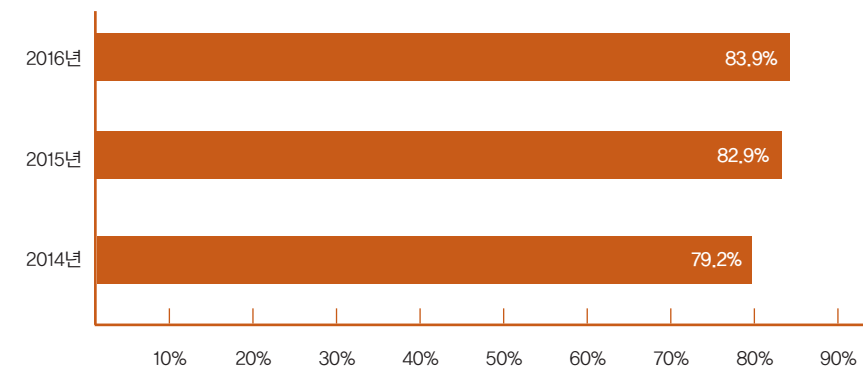
2017년 정기총회

· 대의원 191명 중 151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감사보고, 2016년 감사보고 승인,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주)한살림우리밀제과 2016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유)도서출판한살림 2016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7년도 연합 분담금 및 회비 책정(안) 승인,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17년도 출자금 조성(안) 승인, (주)한살림우리밀제과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유)도서출판한살림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임원선출(안), 정관변경(안), 규약개정(안),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을 다루었고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2016년 이사회 개최실적

· 이사회는 연간 총 10회를 진행했으며 평균 참석률은 전년대비 1%p 상승한 83.9%입니다.

[이사회 참석률]



2) 2017년 총회 기준.

2016년 이사회에서 다룬 지속가능성 이슈 ³⁾

- 이사회는 일상적인 조직운영은 물론이고 밥상살림과 농업살림, 나아가 생명살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이를 사회적책임, 생태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지속가능성의 시선으로 분석한 결과 2016년에는 총 4건의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결정되었습니다.

〈2016년 이사회에서 다룬 지속가능성 이슈〉

회차	내용
4차	파키스탄 알카일아카데미 긴급구호 및 의류재활용사업 추진 (사회적책임) 제3세계 민중교류를 위한 기금 마련 (사회적책임)
5차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 구호금 조성 및 전달 방안 (사회적책임)
7차	한살림 생산출하기준의 금지농약 성분 개정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최근 3년간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면 한살림은 사회적책임 및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관련 이슈를 많이 다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회적책임 이슈 중에서는 국제 연대활동 관련 이슈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관련해서는 물품 안전을 높이기 위한 이슈를 주로 다뤘습니다.

〈최근 3년간 다룬 지속가능성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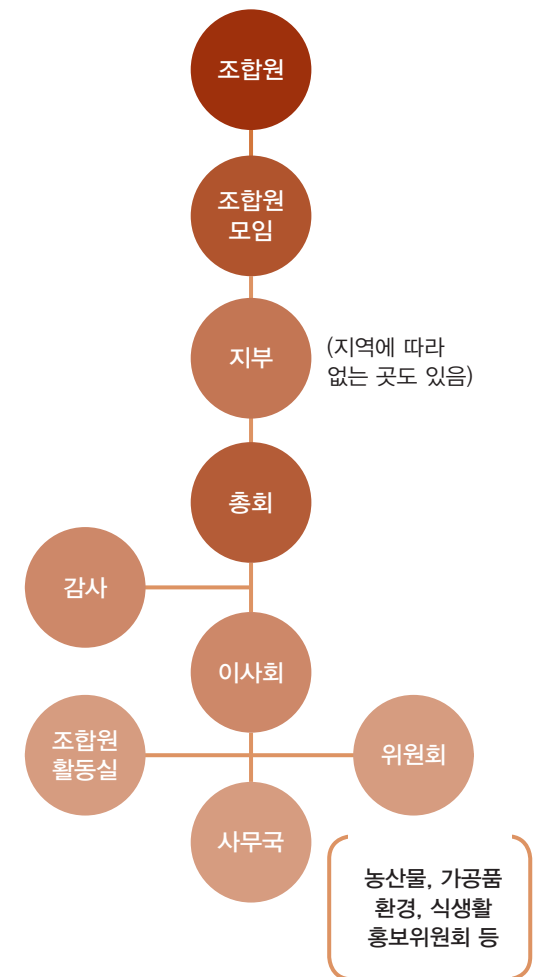
회차	2014년	2015년	2016년
사회적책임	2	2	3
생태적 지속가능성	1	0	0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2	1	1
합계	5	3	4

■ 회원생협과 생산자연합회의 조직도

회원생협

각 지역 회원생협과 생산자연합회는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생협은 조합원으로부터 선출된 대의원이 참여하는 대의원총회가 매년 1회 개최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업과 정책, 임원변경 사항 등을 결정하며, 일상적으로는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자가 최소 1인 이상 이사로 참여하고, 감사는 연합과 동일합니다.

회원생협은 조합원과 직접 만나는 1차 조직인 까닭에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모임, 마을모임, 위원회는 조합원의 일상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통로로서, 모임공간이나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지부' 또는 '지구'라는 분화된 조직을 만들어 조합원과 접촉면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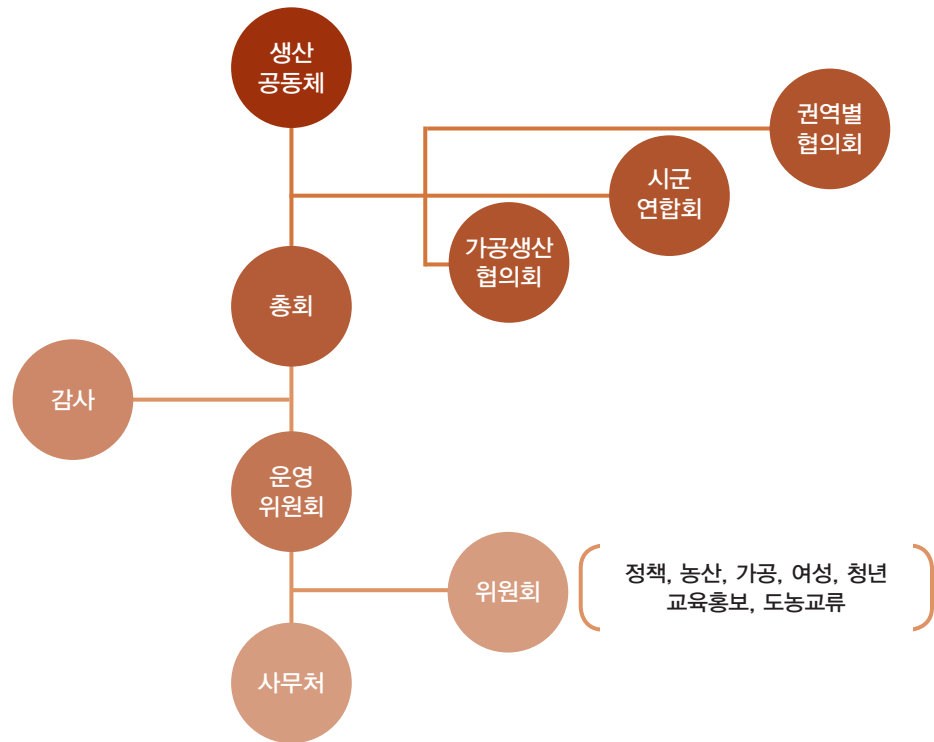


3) 한살림의 일상적인 사업이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지만 여기에서는 조직운영이나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이슈를 제외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이슈들만을 선정했습니다.

생산자연합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전국의 2,150 세대의 생산자회원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각 지역의 공동체로부터 상향식으로 선출된 대표자로 이루어진 대의원총회가 매년 1회 개최되고, 일상적으로는 이사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감사가 이사회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생산공동체는 물품의 생산과 출하를 책임지는 기초조직으로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동노동의 실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공동체 회의에서는 생산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며 친환경경생산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또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때때로 단오잔치, 정월대보름 행사와 같은 조합원 교류 활동을 기획하기도 하고, 이웃과 마을의 대소사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차 생산자는 지역별 공동체에 소속되고 공동체는 다시 10개의 시군협의회 또는 7개 권역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공생산자 회원은 가공생산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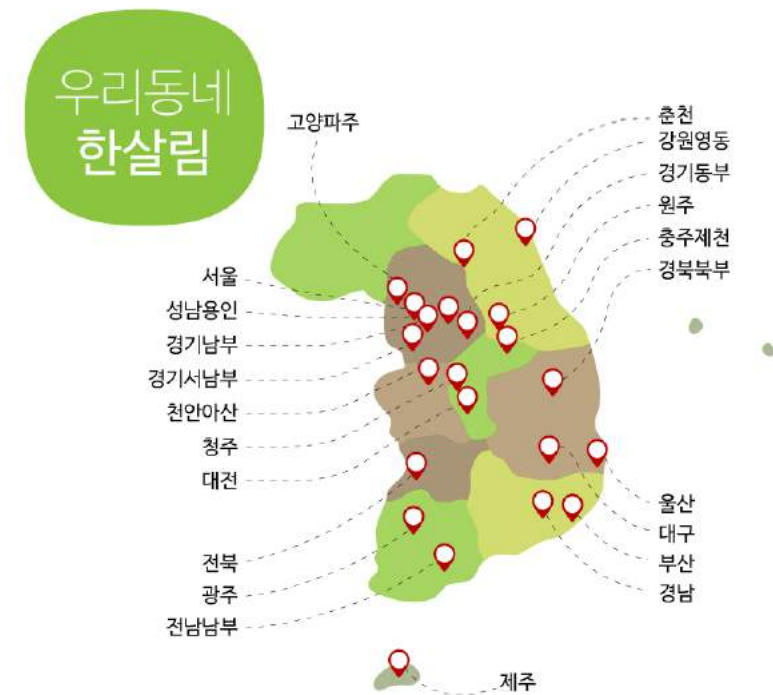


((한살림의 이해관계자))

조합원, 생산자회원, 실무자·활동가, 지역사회는 한살림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한살림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생산자회원과 실무자도 경영에 참여하여 상호 협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집 살림하듯 함께 사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한살림의 협력적 경영구조는 실무와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한살림 활동이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지역사회와도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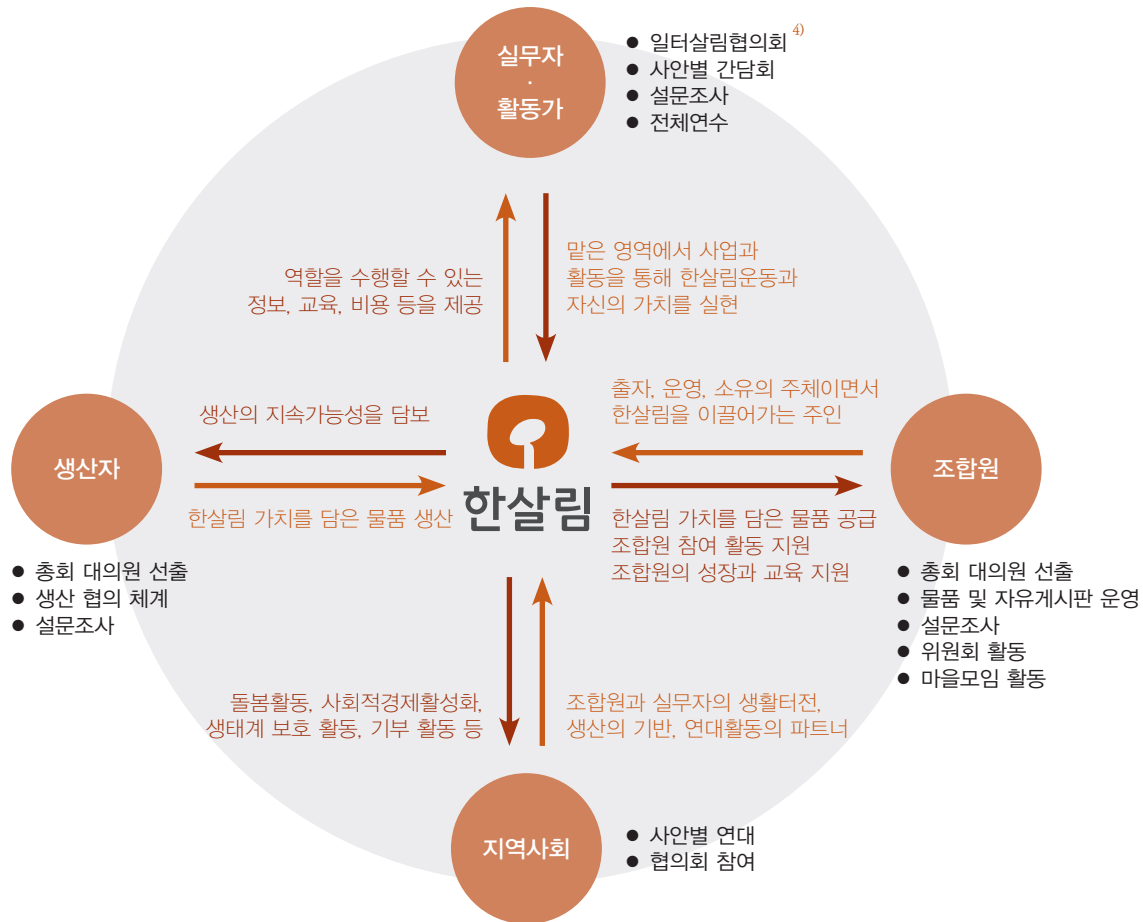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한살림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거나 한살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개인 및 조직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조직 경영론에서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나 그 소유주를 이해관계자로 파악했지만, 오늘날 조직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포괄적이고 그물망처럼 얽힌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조직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2017년 한살림수원이 경기남부로부터 분화되어 현재 회원생협은 23개입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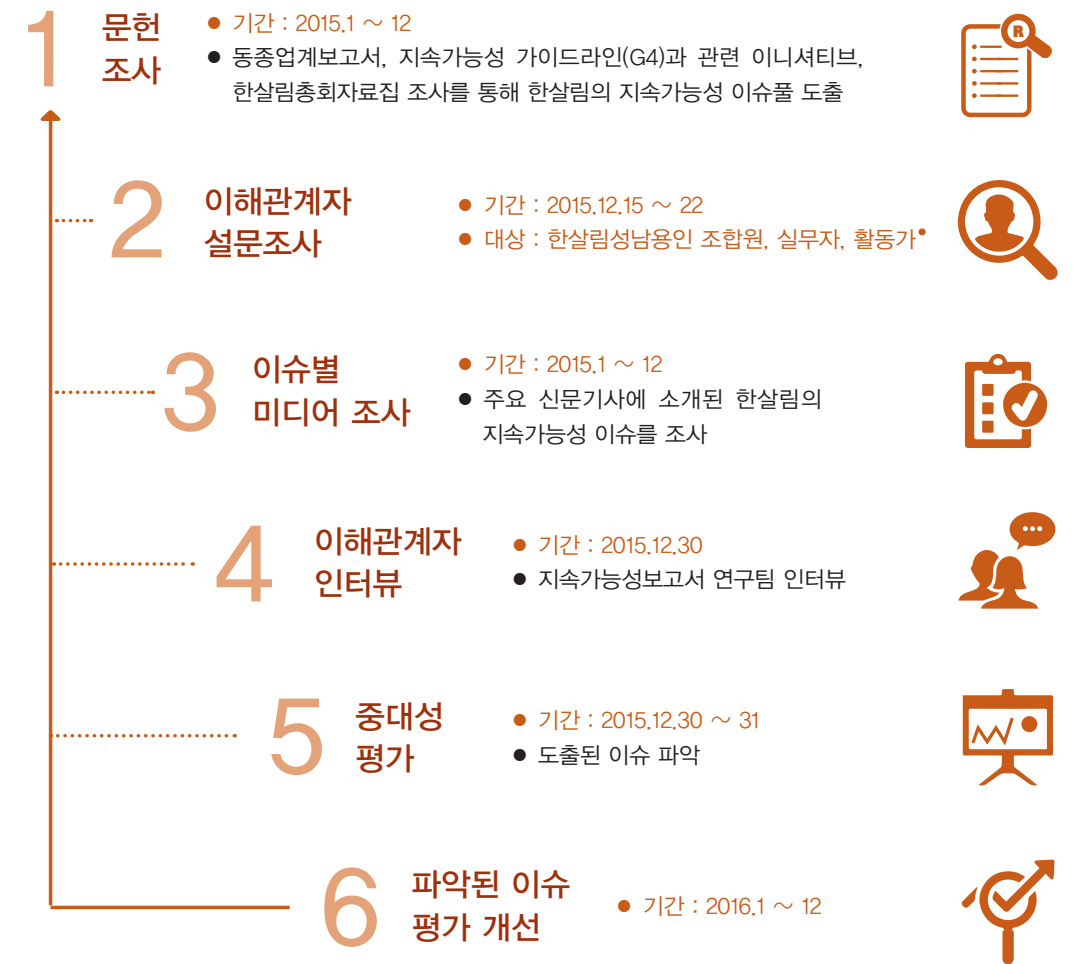
한살림은 총 4개 그룹의 이해관계자와 14개의 소통 채널로 만나고 있습니다. 총회의 대의원 선출로부터 사안별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성이 검토된 내용은 사업과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실무자·활동가의 역할은 2005년 한살림서를 조합원노동 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한살림운동과 조합원노동의 이해」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 이해관계자의 증대성 평가 절차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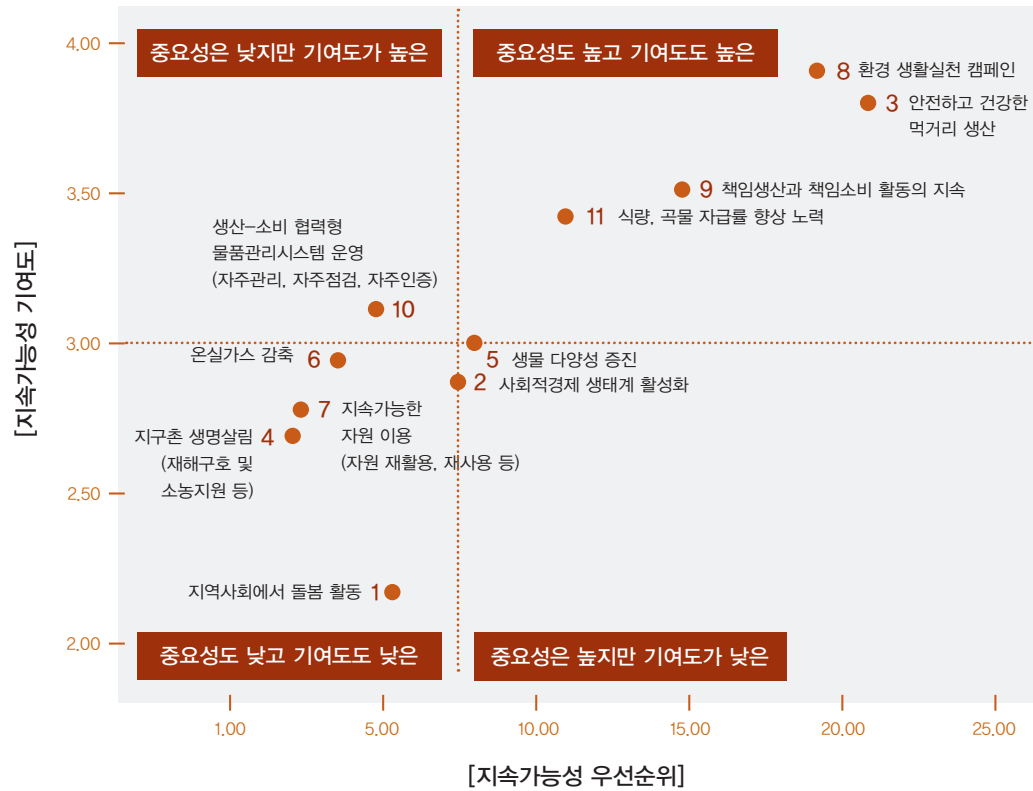
이해관계자들은 한살림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이슈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X축), 그리고 한살림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Y축)를 물어서 2x2 평면에 표기했습니다. 증대성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5) 이 부분은 2015년 조사 결과를 예로 제시합니다.



■ 이해관계자의 중대성 평가 결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환경 실천 캠페인, 책임생산과 책임소비, 자급률 향상에 관한 이슈들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이슈는 중요성은 높지만 아직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한 목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대성 평가로 한살림 안과 밖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살림의 이해관계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책임생산과 책임소비활동의 지속,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중요도와 기여도를 높게 꼽았지만, 미디어 조사 결과는 환경 생활실천캠페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책임생산과 책임소비의 지속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살림은 안팎의 시선 차이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이슈를 도출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원))

‘부엌에서 세상을 만나다’



무심코 대하는 먹거리가 어디서 왔고,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먹거리를 통해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그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한살림 조합원입니다. 한살림은 조합원과 함께 우리 밥상과 농업을 살리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현황⁶⁾

2016년 조합원수는 전국 22개 지역 한살림에서 총 596,240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조합원수(세대)	481,105	535,518	596,240

■ 물품 이용액, 출자금

2016년 한살림의 전체 물품 이용액은 약 3,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 출자금은 5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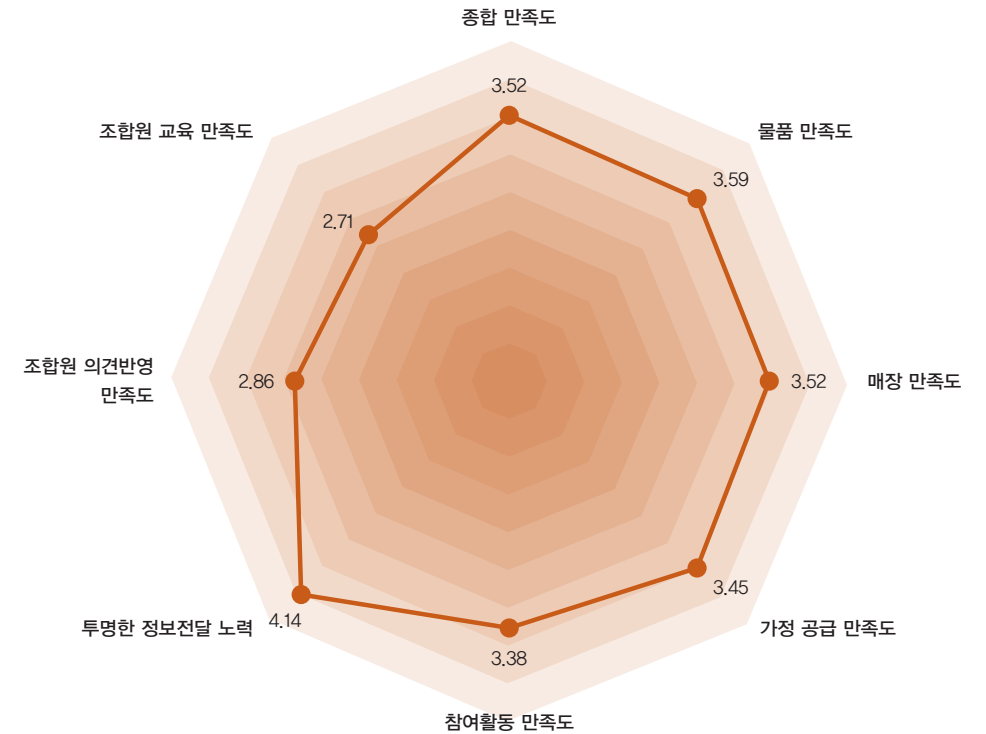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물품이용액	3,460억원	3,749억원	3,965억원
출자금	467억원	526억원	584억원

■ 조합원 만족도 (5점 만점)⁷⁾

조합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만족도는 3.52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세부 분야별로는 '투명한 정보전달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조합원 교육 만족도'와 '조합원 의견 반영 만족도'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6) 2016년 말 현재.

7) 조사기간은 2015년 12월 15일~22일이고 한살림성남용인 조합원 22명이 참가했습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본격적으로 발간한다면 적절한 표본을 설정하여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 2016년 물품 개발 및 개선 현황

한살림은 조합원의 건강한 식생활과 물품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개발된 신규물품은 총 118개로서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이 중 축·수산물이 가장 많이 늘어나 전년보다 1.5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구분	2015년	2016년	
농산물	신규	20	11
	기존물품 개선	14	4
축수산물	신규	15	38
	기존물품 개선	1	6
가공식품	신규	46	40
	기존물품 개선	28	21
생활용품	신규	34	29
	기존물품 개선	23	14
합계	신규	115	118
	기존물품 개선	66	45

■ 세대별 조합원의 필요에 부응하는 물품 개발

조합원 가족수의 감소, 1~2인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조합원의 필요에 부응하는 물품 개발 목표를 세우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유아용 간식 개발, 가정 편의식 다양화, 소용량 가공식품 확대, 안전한 소재의 물품용기 개발, 과일 및 과채 음료 다양화, 설탕 취급 등 다변화하는 조합원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물품 개발로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6년 목표	진행	2017년 목표
세대별 조합원의 요구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맞춤형 물품 개발을 확대한다	86%	지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소식지 평가단을 운영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다	100%	지속
물품 개발과 개선 관련한 조합원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물품개발과 사업운영에 반영한다	100%	지속



■ 조합원 참여활동 현황

2016년 조합원 참여활동은 마을모임 17,598명, 소모임 23,915명, 매장조합원모임 3,585명, 도농교류 14,720명, 위원회 활동 443명 등 총 60,261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조합원 참여활동별 참가자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마을모임	8,723	9,386	17,598
소모임	8,720	10,020	23,915
매장조합원모임	-	3,379	3,585
도농교류	11,230	12,918	14,720
위원회	637	404	443
합계	29,310	36,107	60,261

■ 조합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한살림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마을모임과 소모임을 지원하고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가꾸는 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조합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전국 기초조직활동가 연수를 진행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정리하여 온오프라인 매체로 공유했습니다.

2016년 목표	진행	2017년 목표
조합원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내용 및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40%	지속

■ 조합원 이용 편의를 위한 일요 매장 개장 확대

한살림은 조합원의 매장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요일에도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말까지 수도권 125개 매장 중 116개 매장에서 일요일에 장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자))

‘콩 세 알을 심는 사람’



화학농약과 제초제로 벌레와 새가 떠난 농토를 다시 살려 생명과 공존하는 농업을 꿈꿔온 사람들이 바로 한살림 생산자입니다. 콩 하나는 벌레에게, 다른 하나는 새에게, 마지막 하나는 자신이 먹겠다는 공생의 마음으로 지난 3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 생산자와 공동체⁸⁾

한살림의 전국 생산자는 2,150세대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생산자 공동체는 전년의 114개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세대수(세대)	2,111	2,159	2,150
공동체수(개)	103	111	114

■ 생산 기술 향상

2015년 이래 생산자연합회는 친환경농법의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들이 모여 ‘생산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한살림의 차별화된 농업방식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실험을 통해 얻은 성과는 교재로 편찬하여 보급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 도농교류 확산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알고 또 사이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정월대보름 행사, 딸기 따기 체험, 단오잔치 등 조합원의 생산지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16년에도 생산자연합회는 전국 생산지에서 조합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총 14,720명의 조합원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생산자들도 전국 66개의 한살림 매장을 방문하여 조합원과의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짓는 생명농사를 이어가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 2016년 말 현재.

■ 한살림 물품생산 정책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가장 우선”

한살림은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지향하며 물품 생산에 있어서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제철 생산 물품 ▲무농약, 무화학비료 유기농산물 ▲호르몬제 미사용 물품 ▲외국 농산물 수입에 따라 지속적인 생산이 위협받는 국산 농산물 ▲국산이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 ▲한살림 생산자회원이 직접 재배한 원료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 ▲불필요한 첨가물과 화학조미료 미사용한 가공품 ▲품질과 가격에서 차별성과 우위성을 가진 물품 ▲협동 조직에서 생산한 물품 ▲친환경적 생산방식과 생산환경을 지향하는 물품 ▲항생물질 미사용 물품 ▲자가 배합사료 이용한 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취급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

농업은 인간 생활의 기본요소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조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매개고리입니다. 한살림은 이러한 농업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생산자들이 긍지를 갖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책임생산과 책임소비 원칙, 협의 생산과 직거래, 기금 운영 등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물품생산 정책은 **한살림 정보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해당 페이지 바로 가기 <http://shop.hansalim.or.kr/im/im/cs/IMCS0101.do?&clk=1>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효과?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측정하기 어려우나, 최근 농촌경제연구원(2015)의 조사에 의하면 시장 가치에 비해 **2.2~3.5배**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한살림에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적용해보면 2016년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해 **약 1493억~3110억 가량의 공익적 가치**를 추가로 생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한살림 생산자의 다짐

한살림생산자들은 2005년 생산자대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약속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나 |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까지, 모든 생명을 귀하게 모십니다.
- 둘 | 자긍심을 가지고 생명살림세상을 열어 가는 데 앞장섭니다.
- 셋 |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지 않는 단순·소박한 삶을 지향합니다.
- 넷 | 모든 농사를 생명물질순환원리에 맞는 농업으로 전환합니다.
- 다섯 | 이웃과 함께 생태적인 지역순환농업을 만들어 갑니다.
- 여섯 | 모든 한살림회원을 내 가족으로 여깁니다.
- 일곱 | 생명세상을 가꾸는 데 필요한 공부에 전념합니다.
- 여덟 | 전통적이고 건강한 농촌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씁니다.
- 아홉 | 지역자급 기반을 높이는 데 앞장섭니다.
- 열 |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갈 후계자를 양성합니다.



((실무자·활동가))

‘한살림의 주춧돌’



실무자와 활동가는 한살림을 운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직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업무 분야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실무자는 대체로 총무·회계·홍보·교육·기획·물류·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활동가는 조합의 임원, 조합원 조직화와 활동 지원, 매장 운영, 프로그램 진행,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한살림 실무자와 활동가 현황

2016년 전체 실무자와 활동가 수는 3,899명입니다. 이 중 실무자는 552명, 활동가는 3,347명입니다.

구분	2015년	2016년	
실무자(명)	518	552	
조합원노동활동가(명)	조직활동	154	162
	매장활동	1,147	1,149
	주문상담	30	38
	기 타	22	17
	소 계	1,353	1,311
자원활동가(명)	임 원	258	227
	위 원 회	404	443
합 계	3,886	3,899	



노사협의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등 상시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원 조직은 공동의 노사협의회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노동 조건과 복리 후생 등에 관하여 대표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변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실무자와 활동가 대상 교육을 진행하거나 의견 수렴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수도권 실무자 공동의 노사협의회인 일터살림협의회를 통해서 건강복지, 인사급여, 임금인상, 경조휴가 등에 관한 안전을 논의하고 의결했습니다.



복리후생

모든 실무자들은 4대 보험 및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매 7년 만근자에 대하여 1달의 안식월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실무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한살림연합은 시차출퇴근제를 본격 적용하였습니다.



고충처리제도 운영

업무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조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제도는 중요합니다. 2016년 고충처리위원회가 한살림연합에 공식 설치되었으나 접수된 고충 건수는 0건입니다.



교육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적 과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살림은 협동과 공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민주적 조직운영과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무자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16년 한살림연합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교육을 진행한 결과 총 699명의 실무자와 활동가가 다양한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 실무자 만족도⁹⁾

실무자의 종합만족도는 3.41로 '보통'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무자는 보상 및 복리후생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구분	2016년
종합만족도	3.41
조직의 가치와 비전	3.59
업무 조건	2.79
업무 내적 만족도	2.91
업무 외적 만족도	3.68
보상 및 복리후생	1.99
의사소통 만족도	3.67
인사&교육&평가 만족도	2.16



⁹⁾ 조사기간은 2016년 3월 7일~10일 이고 한살림수도권 실무자 163명이 참가했습니다. 수도권 실무자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정기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했습니다.

■ 자치활동

실무자와 활동가는 바쁜 업무 와중에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연대하는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금 및 기부

- 2015년 11월 우리 농업을 걱정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시위 과정에서 크게 다친 백남기 농민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카페 및 장터 운영을 통해 마련한 110만원을 백남기 농민을 돕고 있는 가톨릭농민회에 전달하고 관련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 2016년 12월 뜻하지 않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가공생산지 옥잠화영농조합을 돕기 위한 모금행사를 기획하여 마련한 170만원을 생산지에 전달하였습니다. 소액이지만 생산자-소비자-실무자-활동가들이 함께 한살림운동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쌀 소비 확대 및 나눔을 위해 2016년부터 한살림 생산지 중 피넛쌀 및 흥천연합회와 연계하여 서울 노들 장애인 야간학교에 매월 60kg의 쌀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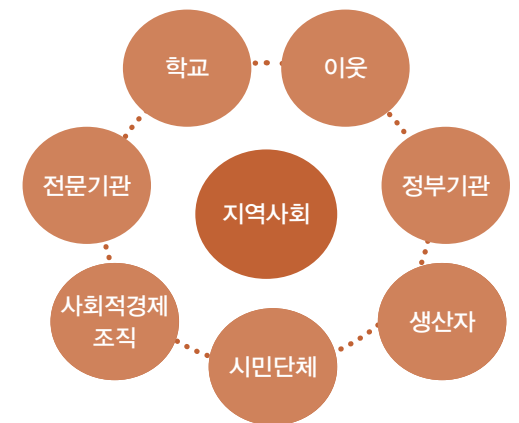


2016년 목표	진행	2017년 목표
연합 인사관리 및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건전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84%	지속

활동가 한살림은 설립 초창기 인력과 자금이 부족했고, 업무의 상당 부분을 조합원의 자원 활동에 의지했습니다. 이분들을 활동가라고 불렀으며, 이후 조직 운영이 점차 안정화 되면서 활동가의 역할도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살림서울**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위원회, 마을모임지기 등의 역할을 맡은 조합원을 **'자원활동가'**로, 지부매장활동팀과 지부조직활동팀 등에서 일하는 활동가를 **'노동활동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한살림대전**은 2013년부터 한살림 실무자와 활동가라는 표현을 통칭하여 모두 **'활동가'**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활동가'**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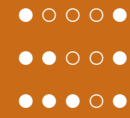
((지역사회))

생산과 소비, 교류와 연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지역사회는 한살림 구성원의 생활을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구성원을 맞이하는 만남의 공간입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 벌어지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농업과 어업, 축산과 같은 생산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물질의 순환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마을이나 동네라고 불리기도 하며 다른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지역사회를 무대로 조합원이 주체로 나서서 우리 이웃은 물론 정부기관, 생산자 조직, 시민단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개인 및 조직들과 함께 연대활동, 사업협력, 캠페인, 돌봄활동 등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살림운동은 최근 사회적경제 조직의 증가와 맞물려서 한살림 운동의 저변을 확산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이자 설립 목적입니다. 오늘날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모든 협동조합은 항상 지역사회를 자신들 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윤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와 지속가능성에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만의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한살림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웃과 협동하여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생활양식을 변화시켜나가는 '지역살림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라는 원칙을 실현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하는 길입니다.

2016년 한살림은 지역사회 돌봄활동,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건강한 식문화 확산,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구촌 생명살림 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의 필요를 협동의 방식으로 풀어가며 연대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3.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돌봄활동))

왜 하는 걸까요?

가족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깊어가는 가운데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사회적 유대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대체한 자리에는 각종 시장 서비스가 들어서고 있지만 접근성은 이전만 같지 못하고 돌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한 편에서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과 이웃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자체의 지원을 얻거나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은 결국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자발적 노력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활동 역시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살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한살림 조합원들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중고 장터 운영, 어린이집 후원, 기부활동 등 오래 전부터 이웃을 돕는 다양한 돌봄활동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살림은 이와 같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돌봄활동을 응원하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살림은 무얼 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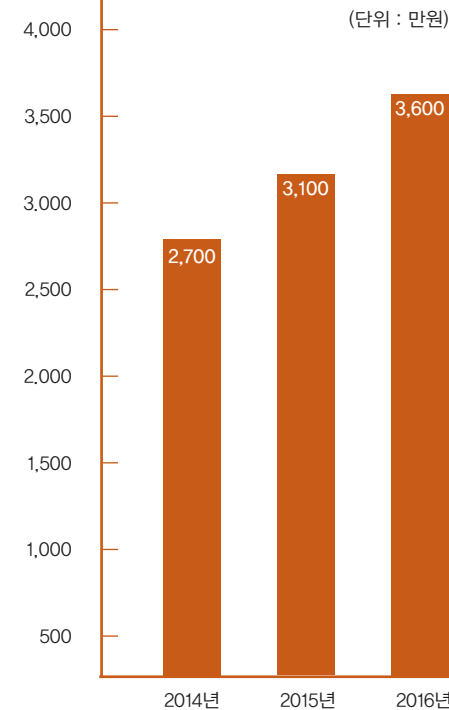
한살림은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돕기 위해 행복기금을 마련하여 기부했고,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같은 돌봄 기관을 운영하고 아이방문돌봄과 어르신아카데미를 진행했으며, 조합원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서 협동하는 조합원 자주지역활동을 펼쳤습니다.



■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행복기금

한살림은 2011년부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긴급구호를 위한 ‘행복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에 물품을 공급하는 물살림과 (주)상시가 참여하여 일부 물품 공급액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전액 기부금으로 사용합니다. 조합원은 물품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으며 기부내역은 한살림재단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적립 대상 물품을 확대하였고 기금은 총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적립된 기금의 일부는 동자동 사랑방¹⁾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기부할 계획입니다.

[행복기금 모금액]



1) 동자동 사랑방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 주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노숙인과 도시빈민의 인권 및 복지를 실현하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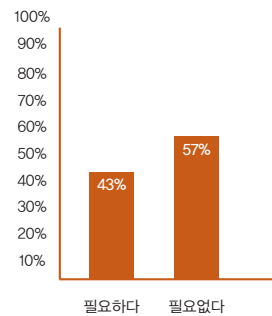
■ 돌봄활동

한살림의 돌봄활동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물질적 수준이 크게 높아졌지만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높아지고 공동체성의 약화와 고립감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살림은 먹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서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사는 지역에서는 가까운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삶을 일구는 돌봄의 관계망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한살림은 2009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육아소모임,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아이방문돌봄사업, 생활돌봄, 어르신아카데미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돌봄의 관계망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발적인 조합원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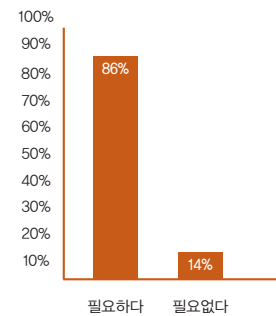
〈조합원과 함께 만든 2016년 한살림의 돌봄활동²⁾〉

돌봄활동 인식 증진	조합원 돌봄 모임	지역아동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	한살림 아이방문돌봄
39회	72회 972명 참여	2개소 아동 38명 교직원 6명	3개소 영유아 135명 교직원 23명	교사 57명 양성 돌봄제공 37건
소식지, 홈페이지, SNS, 사업설명회 등	돌봄수다모임 한살림육아사랑방 어르신아카데미			

[현재 조합원 가정의 돌봄 필요에 대한 의견]



[한살림의 돌봄사업에 대한 의견]



출처: 한살림서울 조합원 의식조사(2012)

■ 조합원 자주지역활동³⁾

조합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발굴 및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에는 총 16개 모둠의 조합원 151명이 참여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어려운 이웃 돕기를 주제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전체 모둠이 모여 그간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육아문제를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자주지역활동 모둠 소개〉

구분	소개
햇살나눔봉사단	한살림 조합원 마을모임으로 시작한 봉사활동 모듬입니다. 토요일마다 모임방에서 리사이클링 가게를 운영하여 모은 수익금은 지역 내 장학금과 네팔 지진피해 학교건립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이스레 화곡동 엄마들 공간, 짬	아이답게 아이를 기르는 방법과 건강한 아이들 먹거리를 고민하던 엄마들 소모임으로 시작해 현재는 엄마들의 공공 공간 '짬'을 운영 중입니다.
한입만 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고민하는 마을모임에서 시작해 지역사회에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 한살림서울에서 진행한 돌봄활동 내용입니다.

3) 한살림서울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조합원 자주활동공모사업'이 '조합원 자주지역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살림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

모심과살림연구소, 2014. "한살림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별 특징과 과제"

한살림연합

- 사회적경제조직 물품취급 원칙 제정
- 교육, 설립, 운영지원
- 사업위탁
- 물품취급

설립 및 운영지원

-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

사업위탁

-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 한살림운송협동조합

물품취급

- 목화송이협동조합 등 12개

한살림서울

-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교육, 설립, 운영지원
- 공급 및 매장 사업위탁
- 연대사업

공급사업 위탁

- 살림나미협동조합
- 바자울협동조합 등 2개

매장운영 위탁

- 함께나루협동조합
- 꿈꾸는강일협동조합

운영지원

- 밥이야기협동조합

연대사업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우리동네 협동가게' 참여

한살림성남용인

- 물품취급
- 설립지원
- 연대사업

물품취급

- 스토어 '36.5' 운영

설립지원

- 푸드스토리 협동조합

연대사업

-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 흥덕고 사회적협동조합 흥덕쿵

한살림아산생산자연협회

- 설립, 운영 지원

설립지원

- 한살림천안아산생협 등 6개

한살림강원영동

- 설립, 운영지원
- 물품취급
- 연대사업

설립지원

- 사회적기업 들살림
- 사회적기업 다자연
- 사회적기업 천향

연대사업

- 문화협동조합 품

물품취급

- '강원곳간' 운영

한살림대전

-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적립
- 사회적경제 조직과 MOU 체결
 - MOU 조직의 물품과 서비스 이용 및 조합원 홍보
- 매장운영 위탁

MOU 체결조직

- 협동조합 희망밥집 등 10개

매장운영 위탁

- 협동조합 엄마꿈

한살림제주

- 공급사업 위탁
- 사회적경제 및 지역시민단체와 MOU 체결
 - MOU 단체간 활동 및 정보 공유
- 물품 취급

공급사업 위탁

- 제주희망협동조합

MOU 체결조직

- 제주생태유아공동체 등 5개

물품취급

- 사회적기업 제주살림
- 스토어 '36.5' 운영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왜 하는 걸까요?

사회적경제는 시장의 극단적인 이윤 추구하고 효율지상주의가 파괴하는 인간적인 노동, 연대, 공공성,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해서 UN은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익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사회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 그리고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실현하는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들이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관련 법제도가 제정되면서 201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이 약 1만개, 사회적기업이 약 1,700개에 달하는 등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회적경제 조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설립된 역사가 짧고 자본금과 운영자금이 부족하며 경영상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증가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살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한살림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 제공, 경영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의 조직된 구매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활동
한살림연합	'사회적경제 물품 취급 지침' 제정(2014년),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교육 지원
한살림대전	사회적경제 조직과 MOU 체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적립, 사회적경제 위원회 운영
한살림서울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일상적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 서비스 제공, 자주관리매장 시범 운영
한살림강원영동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창립 지원,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물품 취급(강원곳간)
한살림제주/한살림성남용인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물품 취급(스토어 36.5 매장) 등

2016년 한살림은 무얼 했나요?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물품 전시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물품 판로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총 118개 조직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한살림과 협력을 진행 중인 사회적경제 조직 수〉

한살림에 물품 공급	매장의 삽입삽 참여	사업 위탁	설립 지원	서비스 이용	연대사업
15개	73개	8개	3개	2개	17개

우리동네 협동가게 프로젝트 참여

2016년부터 한살림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이웃생협 등과 손잡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좋은 물품을 생산하면서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했던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물품을 생협 매장 내에 입점하는 '우리동네 협동가게' 지원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 물품 품평회 심사, 방문심사 등 세 차례에 걸쳐 기업의 가치와 물품 공급의 안정성 등 간단한 심사 결과를 거친 10여개 기업의 물품 25종을 한살림서울 봉천매장과 마포매장에 전시하여 필요로 하는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 지원

한살림은 일하는 사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터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의 매장을 중심으로 자주관리매장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초 정보와 각종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관리매장 확대

한살림은 2014년부터 서울지역의 매장 5개를 자주관리매장으로 시범 운영하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총 15개 매장을 자주관리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자주관리매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단순히 직원으로서 역할을 넘어 운영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협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의 근무 시간, 조합원 활동과 홍보, 인사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지원

2016년 한살림 서울 지역 자주관리매장 중에서 5~12년의 매장활동 경험을 쌓은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꿈꾸는 강일 협동조합'과 '함께나루 협동조합'을 각각 설립하고 한살림서울로부터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은 비단 일하는 사람의 공간만이 아닌 '소비자 조합원과 함께하는 매장'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과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기획과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살림 공급 사업 부문에서도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한살림으로부터 서울 중서부지역과 인천지역의 공급을 위탁받아 일해 온 한우리로컬푸드 소속 구성원들이 모여서 '바자울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구성원의 잦은 교체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들은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바자울이라는 이름처럼 함께 어울려 바람을 막고 따뜻함을 나누는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운영자, 노동자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동안 고용되어 일하던 모습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기에 더욱 노동자보다 운영자로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꿈꾸는 강일 협동조합 허명옥 이사장

((건강한 식문화 확산))

왜 하는 걸까요?

건강한 음식을 충분하게 먹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이는 지속가능성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식품사고, 투명하지 못한 식품표시제도, 새로운 식품 위해요소의 등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먹거리의 확산, 사회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생산방식, 식생활의 불균형 등 먹거리 생산과 소비 전반의 시스템과 문화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살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한살림은 밥 한 그릇에 담긴 농부의 땀, 자연의 흙과 바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생명의 협동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건강은 물론 자연 생태계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식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2016년 한살림은 무얼 했나요?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활동, '식생활 전문 활동가 양성 과정'의 운영, 식생활 교육 콘텐츠의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을 지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GMO 대응 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2016년 목표	진행	2017년 목표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협력 확대	70%	지속
자주관리 매장의 확대를 통한 자주적 운영 모델과 협동조합 위탁매장 확산	13개 자주관리매장 운영 2개 협동조합 위탁매장 운영	지속

■ 한살림의 식생활교육

한살림은 생명살림의 밥상문화 확산을 위해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조합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 '식생활교육 지원법'이 제정되고 한살림 식생활교육센터가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로 보다 전문화된 식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의 양성과 교재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부터 유치원과 학교, 민간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주제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전통 식문화의 복원과 현실 적용을 위한 레시피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문화는 건강한 생산방식과 식재료에서 출발합니다.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으로 맛과 영양을 넘어서 밥 한 그릇 속에 담긴 자연생태계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2016년 한살림은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힘을 쏟아 전년보다 400회 가까이 증가한 1,073회 진행했으며 참가자는 22,098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ORGANIC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식생활교육 강좌	프로그램(횟수)	451	599	1,073
	참가자 수(명)	8,675	13,091	22,098
식생활교육 활동가양성과정	수료자 수(명)	184	52	120

GMO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067만톤의 GMO를 수입하였으며 1인당 45kg(연간)의 GMO를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옥수수과 콩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량의 78%, 옥수수의 5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나 GMO의 안전성이 아직 과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서 GMO 표기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GM작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종자 오염, 슈퍼잡초 발생, 생물다양성 감소 등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GM벼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한살림은 우리 먹거리에 GM 작물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 원료에 기반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표시할 것(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자연 생태계 및 농업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GM 작물 상용화(재배)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의 대표적인 GMO 대응 활동

- 1996년 GMO상업화
- 2000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참여
- 2002년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서명운동
- 2008년 GMO 포함 우려가 있는 원료를 배제한 사료 급여 실험 시작
- 2013년 GMO완전표시제와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한 소비자 권리선언
- 2014년 '자생GMO 작물조사'
- 2015년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GMO-ZERO 추구' 매장 운영
- 2016년 GMO 청원엽서 캠페인 진행 및 지자체별 전달 <GMO반대 전국행동> 창립에 참여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한살림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17년 2월부터 식품에 포함된 GMO 함량에 관계없이 GMO를 표시하도록 표시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GM 원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콩, 카놀라, 옥수수 식용유 등과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 과당이 포함된 제품, 간장 등이 새로운 기준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GMO 대응 활동

1. GMO 청원엽서 캠페인 진행 및 접수된 엽서 15,000장을 지자체별 전달

- GMO 프리존 선언
- GM작물재배규제조례 제정 촉구
- Non-GMO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요구

2. GMO 바로 알기 홍보 활동

- <GMO 바로알기> 소책자 제작 및 배포
- 다큐멘터리 <유전자룰렛> 판권계약 및 배급
- 토론회 및 심포지엄 개최

3. GMO 반대 활동 단체들과 연대 활동

-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간사단체 역할
- GMO반대 전국행동 창립 참여
- 제4회 문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을 통해 국제적으로 GMO를 우려하는 단체들과 공동 활동



((지구촌 생명살림))

왜 하는 걸까요?

새천년개발 프로젝트로 완전한 자유무역을 통해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이 무너진 이후, UN은 가족농 및 소농의 가치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식량의 70%를 이들이 생산하고 이 중 상당수는 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 등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빈곤층의 50%가 또한 소농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2번째 과제로 소농의 소득 보장을 제시하는 이유입니다.(SDGs 2.3)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후변화, 홍수, 가뭄 등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 시스템을 보장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SDGs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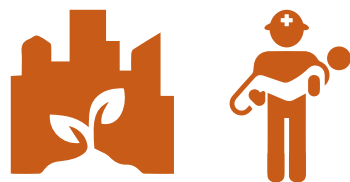


한살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한살림은 '각국, 각지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업을 지향'한다는 농업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은 각각의 환경조건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살림은 국경 너머 이웃들의 삶과 농업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소농들의 유기농업 기반 조성이나 자립을 돕는 국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기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살림은 무얼 했나요?

한살림은 지진피해를 입은 이웃나라 일본의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하고, 2009년부터 시작된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사업에도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 기금 운영

2016년 4월 11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최대진도 7.3의 강진 발생으로 49명이 사망하고 2,700억엔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그린코프생협은 곧바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진피해 지역에 구호 활동을 펼치는 한편으로 오랜 기간 함께 교류하며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한살림에도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한살림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주민을 돕기 위해 모금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에도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참하였으며, 약 3,300만원의 모금액은 일본 '구마모토 지진 그린코프 재해지원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 아시아민중기금 참여

<호혜를 위한 아시아 민중기금>은 제3세계 농민과 민중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09년 창립했습니다. 한국의 한살림을 포함하여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동티모르, 팔레스타인의 7개 국가 37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 민중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중에 의한 호혜적 금융사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6년까지 총 7차에 걸친 총회를 통해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서 농부들이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일, 올리브오일 생산사업 지원, 동티모르 소농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양계 및 양식사업 지원, 필리핀 유기농 사탕수수 생산자회원들을 위한 어음할인 지원 등에 기금 사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각국에서 진행되는 용자사업의 내용과 상환 현황을 공유하고 이후 활동 계획으로 민중기금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할 것과, 자금 수요 증대를 대비한 자금 조성안 강화, 유럽 지역과의 교류 및 연대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GMO 대응운동을 주제로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나누고 한살림이 파키스탄 및 일본과 협력 하에 진행할 섬유재활용운동의 진척 경과를 공유했습니다.

그동안 한살림은 민중기금의 활동취지에 공감하여 회원단체로 활동해 왔지만 회원단체 간 민중교역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설당을 취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첫 파트너로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필리핀 ATC⁴⁾를 선정하여 마스코바도 설당을 시범취급 하였습니다. 또 ATC 직원 및 사탕수수 생산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살림의 활동을 소개하고 인적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회원단체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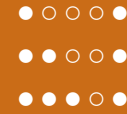
4) ATC(Alter Trade Corporation) 필리핀 네그로스 지역의 생산자 조직 역량강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대안무역 단체.

민중교류 설탕 한살림은 식량자급기반의 확보를 도모하며 각국, 각지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업을 지향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 먹거리를 물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커피와 설탕과 같은 물품에 대한 조합원의 필요라는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2008년 <공정무역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한살림의 농업정책, 공정무역, 제3세계 민중과의 교류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며, 그 후로도 조합원 의견수렴과 토론회가 거듭되었습니다.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한살림운동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토론회에서 '설탕을 직접 취급하지 않기'로 했던 결정은 장기간의 논의 끝에 2016년 제3차 이사회에서 '매일공급기간 설탕 한시적 특별품 취급'으로 변경되었고 제4차 이사회에서 **수입금의 일부는 제3세계 민중교류 및 가족소농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하여 2016년 총 1,284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민중교류와 설탕취급 논의경과〉

시기	내용
2008년 9월	사단법인한살림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개최
2011년 7월	사단법인한살림 <한살림 제3세계 교류 및 연대활동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1년 10월	한살림원주 <한살림과 공정무역 토론회> 개최
2013년 4월	한살림연합 제4차 이사회에서 설탕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기조 재논의
2013년 9월	7개 회원생협에서 설탕 취급 관련 조합원의식조사 진행
2013년 11월	7개 회원에서 정책 토론회 개최
2016년 2월	한살림연합 제2차 이사회에서 토론회 개최 제안
2016년 3월	'매일공급기간 설탕 한시적 특별품 취급'에 관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6년 3월	한살림연합 제3차 이사회에서 '매일공급기간 설탕 한시적 특별품 취급' 결정
2016년 4월	한살림연합 제4차 이사회에서 '제3세계 민중교류를 위한 기금 마련' 결정



"지구는 당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이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 MADANI KOUMARE, Economist, President, National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과 깊숙이 연결된 존재입니다. 자연의 생태계는 인간 사회와 우리 마음의 생태계와 같이 공명하는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못생명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시작됩니다.



04.

생태적 지속가능성



2016년 목표	진행	2017년 목표
한살림운동의 사회적 의의를 알리고 국내외 공헌활동을 펼친다	75%	지속

((생물다양성 증진))

왜 하는 걸까요?

생물다양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먹거리 분야의 생물다양성은 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 농산물 다양성의 93%가 소멸했고, 국내에서는 1985년부터 1993년까지 불과 8년 사이에 74%의 작물 재래종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량생산과 단작, 화학농법과 시설농업의 확대, 씨앗의 상품화, 농업 토착 지식의 단절이 이와 같은 농업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생산자들의 씨앗 구입량도 해마다 늘어나고, 씨앗 자급률은 12%까지 감소했습니다. 최근에는 GM 씨앗으로 생산된 곡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2016년에는 정부의 GM 벼 재배로 친환경농업 생산자들의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같은 생물다양성 감소는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고 가깝게는 우리 식탁의 위협으로도 이어집니다. 이제 무언가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살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토박이씨앗'을 보존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30여 가지의 토박이씨앗 물품을 선별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2014년부터 토박이씨앗을 기르는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합원들이 토박이씨앗을 낫설게 느끼고 이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아서 수요가 큰 편은 아니지만, 토박이씨앗의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한살림은 씨앗 보존을 위해서 종자은행처럼 저장해서 보관하는 시설을 마련하기보다 자연의 본성에 맞게 땅에 심어서 기르고 다시 채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씨앗 스스로가 우리 땅과 기후 환경에 계속해서 적응하도록 하고 이를 먹는 사람들도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토박이씨앗을 홍보하고 조합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4년 '토종종자', '재래종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명칭을 '토박이씨앗'



으로 정립하고 디자인 이미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논 생태계를 조사하고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논살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생명 순환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토박이씨앗살림

2016년 한살림은 무얼 했나요?

한살림은 토박이씨앗 채종포를 운영하고 물품을 조합원에게 공급하였으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하는 다채로운 논살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 토박이씨앗물품 공급

2013년 한살림은 그동안 생산하던 먹거리 중에서 마늘, 미나리, 냉이 등 29종의 토박이 엽채류, 구근류, 콩류 등을 구분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총 40종의 토박이씨앗 물품을 전국 한살림 생산지 27만평에서 길러내어 조합원들에게 445톤을 공급했습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품종수(종)	37	42	40
생산면적(평)	151,415	174,292	274,174
생산량(kg)	440,397	517,248	444,894

■ 채종포 운영

국내에서도 많은 토박이씨앗들이 사라졌지만 그 중 일부는 소수의 생산자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채종 목적의 씨앗을 별도로 수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살림생산자연협회, 한살림괴산생산자연협회, 한살림충주제천, 한살림청주, 한살림대전, 한살림서울, 한살림고양파주 구성원들이 함께 출자하고 지원하여 '우리씨앗농장'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충북 괴산에 토박이씨앗 채종포를 마련했습니다.



2016년 말까지 밭 5,200평, 논 700평, 산 53,600평 규모로 조성된 농장에서는 159종의 토박이씨앗을 재배하는 한편으로 조합원과 함께 논살림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씨앗농장의 주요 활동〉

확보된 토박이씨앗	토박이씨앗 나눔	한살림 물품공급	우리씨앗 키우기	농장방문
159종 (보급용 50종)	41종 223kg	1,227만원	전국 10개 매장	796명 손모내기, 벼베기 행사 등

2016년 한살림은 토박이씨앗물품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신규 토박이씨앗 물품을 개발했으며 별도 포장재를 구성하고 우리씨앗농장과 연계한 토종종자 생산계획을 지속했습니다.

2016년 목표	진행	2017년 목표
토박이씨앗 물품공급 안정화	80%	지속

■ 논살림 활동

한살림 괴산, 여주, 예산 등 7개 지역의 생산지에서 매년 수십 명의 조합원과 아이들이 논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를 탐구하고 논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곤 합니다. 투구새우, 물방개, 소금쟁이 등 눈에 보이는 생물들은 물론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생물들까지도 논 뚝방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논살림 활동으로 논 주변의 흙과 생태계를 복원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논을 습지생태계환경으로서 재인식하는 것은 화학농약에 의존하는 관행농업에서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이러한 논살림 활동 체험은 생명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2016년 한살림은 총 3개의 논살림 위원회를 운영하며 조합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논생태 체험, 손모내기 행사, 논살림 강좌, 논환경안내자양성과정, 생태모니터링 등에 총 603명이 함께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왜 하는 걸까요?

전 세계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016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6년의 평균 기온은 섭씨 14.83도로 20세기 평균보다 0.94도가 높아졌으며 앞으로 2100년까지 적게는 3.2도에서 크게는 5.4도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연평균 기온 13.6도를 기록해 가장 더운 여름을 맞았고 폭염과 기후변화로 많은 사람과 동식물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거리 생산과 산업 활동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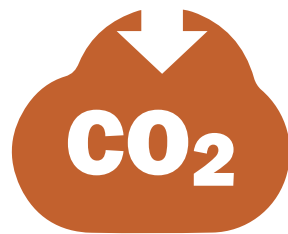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 기후총회에 모여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되, 1.5℃ 이하로 제한할 것으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대상 국가도 교토의정서에 참여했던 선진 38개 국가에서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됐습니다. 그만큼 기온 상승이 인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며 더 이상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살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한살림은 정책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향하고, 국내산 먹거리만을 취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관행농업보다 생산 방식에서 적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입산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리병을 재사용하고 햇빛발전소 운영을 지원하며 조합원의 생활 속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응원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살림은 무얼 했나요?

친환경농업 실천, 가까운 먹거리 운동, 병재사용 운동, 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 한살림의 온실가스 배출량

2016년 한살림의 운송 부문과 전력 소비, 그리고 농업 생산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9,813 톤CO2e/yr입니다.

〈최근 2년간 한살림의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2015년		2016년	
	배출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톤CO2e/yr)	배출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톤CO2e/yr)
운송 연료 소비*	1,563KL	4,086	1,653KL	4,321
전력 소비**	2701MWh	1,159	2,857MWh	1,225
농업 생산***	4,237ha	23,788	4,317ha	24,267
합계	-	29,032	-	29,813

* 연료소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공식은 총 배출량 = {Σ(경유소비량 × 발열량 × 환산계수 × CO2 배출계수)} × 온실가스 배출계수 + [(Σ(경유소비량 × 발열량 × 환산계수 × CH4 배출계수)) × 온실가스 배출계수] + [(Σ(경유소비량 × 발열량 × 환산계수 × N2O 배출계수)) × 온실가스 배출계수]이며, 이동연소에 의한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지구온난화지수는 2006 IPCC배출계수를 적용했습니다. 2015년 한살림연합 사무국, 물류센터에서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의 사용량을 예산액으로 간접추정 하여 파악했으며, 2016년은 공급 증가분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 전력소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공식은 총 배출량 = [(구매전력 × CO2 배출계수) + (구매전력 × CH4 배출계수) × 온실가스 배출계수] + [(구매전력 × N2O 배출계수) × 온실가스 배출계수]이며, 온실가스별 배출계수는 KPX 2007.4를 적용했으며, 지구온난화지수는 2006 IPCC배출계수를 적용했습니다. 2015년 한살림연합 사무국, 물류센터에서 사용한 전력소비를 실측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했으며, 2016년은 공급 증가분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2012년 농업부문(경종)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 농업경지 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관행 및 친환경)을 구한 후 이를 한살림 농업 생산면적에 적용함. 2016년 한살림 농업생산 면적은 수급 생산지 면적을 포함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저감 노력¹⁾

한살림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통해 국내산 먹거리만을 물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행농업과 수입농산물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을 크게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병재사용운동, 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을 통해서도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 한살림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줄여나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8,492톤CO₂e/yr로, 이는 30년 생 소나무 약 129만 그루의 CO₂흡수량에 해당합니다.²⁾

〈최근 3년간 한살림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

(단위 : 톤CO₂e/yr)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입 농산물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1,466	1,501	1,509
관행 농업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6,105	6,582	6,676
병재사용 운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49	76	84
햇빛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263	278	258
합계	7,883	8,437	8,527

관행농업은 친환경농업 대비 40% 가량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합니다.

미국의 로데일연구소(Rodale Institute)는 30년에 걸친 장기 연구를 통해 관행농업이 동일 면적의 친환경농업 대비 약 40% 가량의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발생은 크게 대기 발생량과 토양 내 축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온실가스 축적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농업진흥청이 지난 10년간 조사 데이터를 통해 화학비료 투입시 토양 내 이산화탄소 축적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벼질퇴비와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화학비료를 대신하는 경우 축적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작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작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로데일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략적인 온실가스 발생량을 추정합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와 기후, 재배방식, 토양, 작물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우리 실정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관련 분야 연구 동향을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한살림은 설립 당시부터 장기간에 걸쳐 국내로 수입되는 먹거리보다는 유통 거리가 짧은 국내산 먹거리(=가까운 먹을거리)만을 취급해 왔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를 돕고, 유통 과정에서 식품 보존제에 의존하지 않는 신선한 먹거리를 조합원에게 공급하며,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과 생태계,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가 점점 더 커져가는 가운데, 가까운 먹거리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흔히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라고 불리는, 생산자의 농장으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먹거리가 이동하는 거리를 측정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글로벌 푸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이들 먹거리의 이용 비중이 높아지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햇빛발전소 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

한살림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핵에너지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생명이 공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본격 모색해 왔습니다. 2012년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 한살림 조합원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했으며 현재까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연합과 한살림대전 물류센터 지붕에 설치된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이 구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액은 출자자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전력은 약 609,045 만kWh로서 약 258톤CO₂/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은 유기농, 무농약, 자주인종 농산물 재배 면적을 의미합니다.

2) 국립산림연구원(2013)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30년생 소나무 1그루당 연간 CO₂ 흡수량을 6.6kgCO₂e/yr로 측정함.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왜 하는 걸까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도시에서 1인 평균 하루 1.2kg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이는 연간 13억톤에 달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 22억톤, 2100년에는 3배가 넘는 40억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생태계 오염을 비롯한 위생과 비용 문제를 수반하며,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높습니다. UN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의 확립'이라는 의제를 제기한 것도 이런 현실에 바탕한 것으로서,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폐기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3년 기준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38만 톤에 달하고, 국토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은 OECD 국가 중 4위입니다. 그러나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전체의 84% 수준으로 나머지 6만여 톤은 매립과 소각 또는 바다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08-2013) 폐기물 재활용 비중이 1.6%p로 소폭 상승했지만 매립지 수용에 한계가 있고,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근본적으로는 폐기물이 감소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살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한살림은 일찍부터 '쓰고 버리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환경, 에너지, 소비 등을 주제로 강좌를 기획하여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일상적으로 조합원들이 모은 채소 봉지, 나일론 망, 종이 상자, 철끈, 폐식용유, 유리병, 계란판, 쌀자루 등을 수거하여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 왔으며, 쓰레기분리수거 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유리병만을 수거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리병은 녹여서 재활용할 수도 있지만 세척·소독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에너지와 비용이 절반 이하로 소비되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정책적으로 병 재사용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를 구성·운영하고, 2014년부터 물류센터에 병 세척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빈병을 반납하는 조합원에게 출자금 50원을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 한살림은 무얼 했나요?

재사용병 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 병뚜껑 로고 개선 및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다 쓴 우유팩 교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생태계를 고려한 한살림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일부 물품의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 재사용병 캠페인

2016년 한살림은 조합원들이 재사용병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병뚜껑의 로고를 개선하고 재사용병 캠페인의 취지를 소개하는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 조합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재사용병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6년 회수된 재사용 병은 총 280,945개이며 회수율은 23.0%로 전년 대비 2.9%p 증가했습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재사용병 수량	공급량(개)	1,156,601	1,265,072	1,218,925
	회수량(개)	161,881	252,485	280,945
	회수율(%)	14.0	20.1	23.0
재사용병 무게	무게(톤)	44.8	69.9	78.1
	전년대비(%)	-	56.0% 증가	11.6% 증가

2016년 목표	진행	2017년 목표
재사용병 회수율 25%	23%	25%

“우유값 줄게, 휴지 다오!”

한살림은 자원재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다 쓴 우유팩을 받아서 화장지로 교환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4,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우유값(1,000ml) 약 11만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수거한 우유팩은 50m 2겹 휴지 약 9,150개 생산 분량입니다.



■ 생태계를 고려한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자원절약, 환경보호, 재활용, 비용절감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적용함으로써 생태계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을 적용해가고 있습니다.

2016년 목표	진행	2017년 목표
생태계를 고려하는 한살림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개선작업을 진행	65%	지속



((생활실천운동))

왜 하는 걸까요?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는 다층적입니다. UN이라는 국제기구로부터 각국 정부, 기업, 크고 작은 단체, 그리고 개인 차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한살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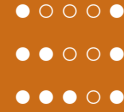
한살림은 일찍부터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입농산물 안 먹기, 수은 건전지 분리 배출하기, 합성세제와 샴푸 안 쓰기, 페유로 비누 만들어 쓰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개인컵 사용하기 등 생활 속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또 조합원의 생활실천운동을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 강좌를 진행하고 소식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를 열어 조합원 활동을 안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덧 하나의 문화로 한살림에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6년 한살림은 무얼 하였나요?

한살림은 전국에 3개의 환경위원회가 활동하며 조합원과 함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프로그램 및 생활실천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일상적으로 사무실과 매장 등 사업장에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 조합원과 함께

조합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실천 방법은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살림이 취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하여 각종 생활용품과 가공품은 가급적 지구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생산했습니다. 이를테면 쌀 8kg을 이용하면 농약과 화학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7명의 눈을 보전하는 것이고, 우유팩 100%로 만든 세겹동근휴지를 이용하면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며,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을 이용하면 동물을 보호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생태계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는 캠페인을 통해 조합원의 생활실천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서울은 물과 고기와 기름을 아껴 쓰는 '물고기 캠페인'을, 한살림대전은 '지구인 프로젝트'를 매월 진행하여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문화, 먹거리, 환경 영역의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고, 참여한 조합원들이 작성한 후기를 다른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살림고양파주는 '에코가족 모임'을 열어서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살림 사무실과 매장

일회용 종이컵을 쓰는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컵과 쇠컵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와 회의 자리에서도 개인컵 지참은 이제 한살림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환경호르몬이 없는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영수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래 쓸 수 있는 장바구니 이용을 권장하고 조합원 필요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반납한 재사용병과 종이상자를 수집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농업과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와 협동을 실천의 중요한 방법으로 정립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생산-소비 협동형 물품관리체계 구축, 생산 안정성을 위한 지급률 향상을 주요 주제로 삼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5.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나게 하고 친한 사이가 되도록 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이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여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는 직거래활동을 펼쳐서 농산물의 품질이나 수량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도 살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서로가 믿고 돕는 관계가 되고 모두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 박재일, 1987.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중>

왜 하는 걸까요?

생산과 소비의 관행이 중간 유통을 매개로, 특히 오늘날에는 초국적 기업에 의해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되면서 유통 비용과 푸드 마일리지(식품의 운송 거리의 총합)가 높아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신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등장한 생산·소비 제휴운동(혹은 공동체 지원농업)과 로컬푸드 운동은 공통적으로 중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회복하고 지역 수준에서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며, 농업이 가진 생태, 사회, 경제적 공익성을 환기합니다.

한살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국가에 의한 생산통제 정책으로 화학비료와 제초제가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1980년대, 한살림은 이러한 관행농업의 폐해를 절절히 깨닫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생산자들과 시장이 인식하지 못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물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그리고 이들의 협동을 조직한 실무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설립한 조직에서 직거래는 당연한 원칙이 되었고, 생산 계획 단계서부터 상호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약속은 책임을 갖고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생산과 책임소비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제값을 평가받지 못하여 생산가격도 보장받지 못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한살림은 무얼 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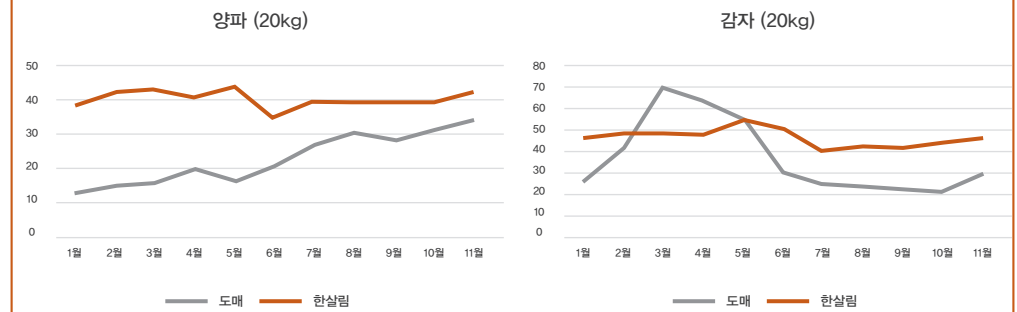
약정된 물품에 대한 책임생산과 책임소비 원칙의 지속, 적정 가격 정책을 통한 생산 농가의 생산비 보전, 자금 운영을 통한 가격안정과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책임생산과 책임소비 원칙의 지속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농산물의 종류와 취급 기준, 생산방식과 생산량, 가격 등을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에 약정된 물품을 직거래하는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자는 판로가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는 건강한 물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한살림은 총 21,538톤의 물품을 계약하고 부족한 물품 4,586톤은 수급 생산지로부터 확보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했습니다.

가격유지 효과 한살림은 생산 약정에 따라 공급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그래서 시장 관행 농산물보다 가격 변동폭이 작습니다. 실제 시중 도매가격*과 변동계수**를 적용하여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2015년의 경우 양파는 도매 0.32, 한살림 0.09, 감자는 도매 0.45, 한살림 0.09로 각각 나타납니다. 이는 한살림이 일반 관행 농산물에 비해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하며, 장기간 저장이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면 연중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한살림 농산물 이용으로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감자의 가격 변동 비교]



* 상품(上品) 기준.
** 서로 다른 식품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것으로, 여기서는 가격변동 폭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함.



■ 적정 가격 정책

한살림 생산자의 평균 영농 규모는 6,074평으로 중소농 및 가족농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농규모는 작지만 국내 농업 생산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주도형 국내 경제구조의 특성상 농업의 수익성 하락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한살림은 적절한 수준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원가에 시장가격과 이용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에게 최종 적용하는 공급가격을 100%로 잡았을 때 약 74%를 생산가격으로 배정하고 26%를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가급적 생산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의 필요성, 즉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주요한 목표로 삼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살림의 생산자들은 일반 농가보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은 '전업농'의 특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한살림의 정책이 농업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¹⁾ 2016년 한살림 생산자가 한살림에 물품을 공급하고 받은 연평균 수취액은 36,776천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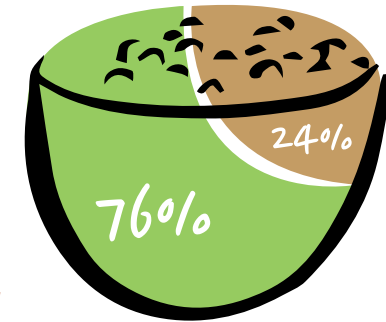
〈최근 3년간 농가당 연평균 수취액〉

(단위: 천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농가당 연평균 수취액	36,943	36,539	36,776



1) 2014년 전국 한살림 생산자 회원 현황 및 의식조사 보고서.



생산가격
퇴비, 유류비, 인건비 등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

24%
한살림
운영비
공급가격
매장 운영, 전산, 공급 등의 비용

■ 기금 운영

한살림은 시장 가격 변동과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안정기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자의 경제적 손실을 일부 지원하여 생산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며, 가격안정기금은 작황 및 시장 환경에 따른 물품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조합원이 이용 가능한 한살림 물품가격을 형성하는데 사용됩니다. 각 기금은 조합원이 공급액의 0.1%를, 생산자가 같은 금액을 출연하여 적립합니다. 적립금은 생산자와 조합원이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리합니다.

2016년 한살림은 가을장마로 인한 잡곡류·꽃감·당근·등의 피해, 태풍 피해로 인한 브로컬리 시설피해, 가공산지 화재, 축산산지 전염병, 2015년산 쌀 적체에 따른 외부판매 등으로 9억 6백만원의 생산안정기금을 집행했습니다. 가격안정기금은 사과, 절임배추, 흑미, 한우 품목 등에 총 2억 4천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14년	2015년 ²⁾	2016년
가격안정기금 집행액	32,860	25,937	24,792
생산안정기금 집행액	9,940	34,189	90,636

2) 2015년은 11월까지 보고된 자료임.

((생산-소비 협력형 자주관리))

왜 하는 걸까요?

국내 친환경농업 규모는 지난 2002년 전체 농산물 대비 1.1%에서 2009년 12.2%로 늘어나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5년까지 4.5%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2009년 저농약 신규 인증이 중단된 점, 그리고 친환경농업 생산물의 투입 비용은 높으나 생산량이 적고 시장가격이 저렴한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태계 보호와 토양 유지, 기후변화 저감이라는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물론 소비자들과 쌓아온 신뢰의 토대를 고려할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살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한살림은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안심할 수 있는 생산-소비 협력형 자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국가 인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자주인증, 자주관리, 자주점검이라는 세 가지 제도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인증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조합원이 생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상호 약속된 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합원 참여형 자체 인증시스템으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농약 인증제도의 폐지에 대응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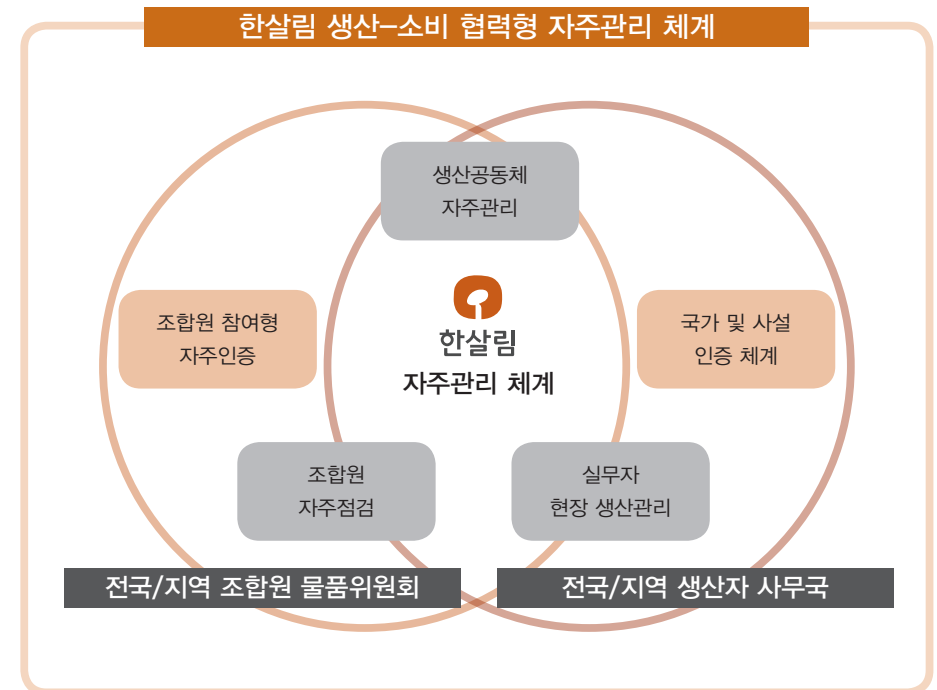


습니다. 자주관리는 2013년 도입되었으며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활동으로, 한살림의 원칙과 약속된 기준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자주점검 역시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조합원이 생산지를 방문하여 생산자의 자주관리활동을 확인하면서 생산자와 물품 생산과정 등을 알아가는 활동입니다.

2016년 한살림은 무얼 하였나요?

자주인증, 자주관리, 자주점검 제도를 지속하고 조합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살림 생산-소비 협력형 물품관리 체계



자주인증

2016년 총 7개의 저농약 과실류 품목(사과, 배, 복숭아, 자두, 단감, 대봉, 대추)을 재배하는 24개 생산지 133명의 생산자에 대해 2016년 한 해 동안 2차례씩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자주인증 심사대상 및 승인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증가율 (15/14)
심사 생산지 수(개)	22	22	24	4.5	9.1
심사 생산자 수(명)	60	117	133	54.3	13.7
승인 생산자 수(명)	56	114	129	58.4	13.2

■ 생산자 자주관리점검표 취합률

생산자들의 자주관리활동 참여가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농산을 제외하고는 참여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농산	49	80	65
가공	83	89	100
축산	89	83	100
수산	82	81	100
생활용품	64	91	100

■ 조합원 자주점검 활동 참여 추이

전국 12개 회원생협 소속의 61개 활동팀이 자주점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회원생협(개)	11	11	12
활동팀(개)	35	58	61
활동팀원(명)	175	285	345
목표대비 달성률(%)	87.5	96.7	76.0

■ 생산-소비 협력형 물품 관리 체계 강화

자주인증, 자주관리, 자주점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원과 생산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자주점검활동 관련하여 회원생협의 담당자 교육과 정보 제공 및 홍보방법 다양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생산자들의 자주관리와 관련해서는 물품별 특성에 맞춘 체크리스트 보완과 참여율 향상을 위한 생산지와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주인증 관련해서는 현장점검원들의 독자적 점검활동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2016년 목표	진행	2017년 목표
생산-소비 협력형 물품 관리 체계 강화	78.7%	지속



((물품 안전성 관리))

왜 하는 걸까요?

먹거리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거리 관련한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방사성물질, 화학물질 등 새로운 위해요소가 계속 등장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한살림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조합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물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6년 한살림은 무엇을 했나요?

위해요소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 리스크를 관리하고 물품 관련 사회 이슈에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 물품 위해요소별 안전성 관리

잔류농약, 방사성물질, GMO, 벤조피렌, 이물 발생 등에 대해 약 1,800건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생산지와 유통과정에서도 자발적으로 안전성 위해요소를 찾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위해요소별 안전성 검사 결과〉

구분	대상품목	건수	비고
농약잔류검사	1차 농산물	851(1,200)	23건 출하 전 검출
방사성물질검사	버섯, 수산 등	557(600)	6건(지역자체물품 3건 포함)
GMO검사	콩, 옥수수	-	생산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벤조피렌검사	참기름	118	모두 적합
이물 발생	53개 가공생산지	245	이물 발생 전년대비 1.6% 감소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의한 자연환경과 먹거리 오염 문제가 본격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한살림은 현재 설정된 국가 방사성 물질 기준치가 너무 높으므로 이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한편 취급 물품에 대하여 국가 기준치보다 낮은 자주(독자)기준치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검사처는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방사성물질 검사횟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557회 입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검사횟수(건)	479	544	557

생산지 필지점검 및 안전성 검사 체계 강화

2016년 전국 11,971필지(1,945명)의 생산지를 대상으로 농약 오염 등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정 제외 83필지, 잔류농약검사 1,492필지, 구분수확 대상 327필지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산사양, 자주인증, 자연산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 목표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강화

진행

96.7%

2017년 목표

100.0%

((곡물자급률 향상 노력))

왜 하는 걸까요?

국제농업식량기구(FAO)는 먹거리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먹거리 안정성(food stability)을 확보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의 생산기반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농업 생산 환경은 안정적인지가 중요한 하위지표가 됩니다. 한국의 경우 곡물의 76%를 국외에서 수입하고 이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나 유가 변동에도 민감한 편이므로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국외 의존을 줄이고 국내의 안정적인 곡물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한살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한살림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곡물 자급 기반의 확보를 도모'하고 '각국, 각지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업을 지향'하는 것으로, 국내 생산된 물품만을 취급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축산을 위한 퇴비와 사료 부문에서는 수입 곡물을 상당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곡물자급률이 24.0%, 쌀을 제외하면 5.0% 수준인 한국의 수입 의존적인 먹거리 생산시스템 안에서 한살림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살림은 먹거리 안정성 측면, 그리고 지역의 물질 순환의 측면을 고려하여 생산에 투입되는 자재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들에게 자가 사료 활용을 권장하고, 생산자들은 자체 농업 부산물이나 한살림 가공산지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는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을 통해 생산된 우리보리사료를 급여하여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국내 보리 생산 기반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살림은 농지를 지키는 일을 통해 먹거리 안정성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살림성남영인에서 시작된 농지지킴이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지의 보존과 관행농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한살림 농지살림 운동의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농지살림
운동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지의 보전과 개선
농지의 공유화를 통한 농업의 지속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 참여



먹거리 안정성
보장에 기여

■ 해썹(HACCP) 시설 현황

HACCP은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강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1995년 식품위생법에 HACCP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HACCP시설 인증	31	36	확인증
비율	24%	27%	-



■ 사회 이슈에 신속 대응

2016년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한살림은 이슈가 되었던 치약류 CMIT/MIT 살균제, 샴푸와 린스류의 항알러젠, 산란계 살충제 논란 등 총 10건의 이슈 관련 설명자료를 제시하여 조합원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있는 한살림의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2016년 한살림은 무엇 하였나요?

한살림은 축산 사료의 국내산 비중을 높이고 관련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활동을 했으며, 논 지키기 운동을 통해 매각위기에 놓인 유기농 논을 구입하기 위한 출자금을 모집했습니다.

■ 축산사료 자급률 향상

2016년 축산분야 국산사료 급여량은 총 12,233톤으로, 이는 전체 사료급여량 대비 30.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97.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살림은 국산사료 급여량을 높이기 위해 축종 확대를 모색하고, 사료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축산사료 자급을 위한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 설립

2012년 한살림은 국산 사료 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보리 재배 농가, 축산(돼지) 사육 농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수입 옥수수 대신 밭아시킨 우리보리사료를 먹여 키운 '우리보리살림 돼지'를 공급하였고, 2014년에는 보리 사료 가공을 위해 전북 김제시에 밭아보리가공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농지 667만평에서 보리 농업을 지속하며 닭과 소로도 축종을 넓혀 국산 사료 자급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한우 키우기 입식 사업

한살림성남용인은 2011년부터 제주 한울공동체와 함께 국산 사료 한우 키우기 입식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사업 방식은 조합원이 모금한 돈으로 생산 농가가 송아지를 구입하고, 그 송아지가 커서 3마리를 낳으면 조합원에게 고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한살림성남용인은 2013년까지 3년간 총 1억 3700여만 원을 모금했고, 한울공동체는 이 돈으로 38마리의 한우를 입식하여 2014년부터 한살림성남용인에 명절마다 소를 보내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살림성남용인은 조합원들과 사료 자급률이 취약한 축산 현실을 함께 공유하고 한울공동체는 지역의 농업 부산물을 축산 사료로 활용하고 축산에서 발생한 축분을 농작물 퇴비로 돌려주는 순환적 농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전국에서 국산사료로 한우를 키우는 7농가 가운데 5농가가 한울공동체 소속입니다.



구분	2016년		
	총 급여량(톤)	총 자급량(톤)	자급 비율(%)
소	20,814	9,665	46.4
돼지	6,238	1,550	24.8
닭	13,173	1,018	7.7
합계	40,225	12,233	30.4



구분	2015년			2014년		
	총 급여량(톤)	총 자급량(톤)	자급 비율(%)	총 급여량(톤)	총 자급량(톤)	자급 비율(%)
소	15,054	4,311	28.6	12,495	3,653	29.2
돼지	5,548	977	17.6	4,753	973	20.5
닭	10,977	906	8.3	10,561	739	7.0
합계	31,579	6,194	19.6	27,809	5,365	19.3

■ 한살림 농지살림 운동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친환경 농지를 보전하고 식량 자급력을 향상시키며 농지의 공공성 실현을 이루고자 '농지살림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마련된 자본금으로 총 770평의 농지를 구입했으며 이는 우선 토박이 씨앗을 기르고 보전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적극적인 출자운동을 펼쳐 농지보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구입한 농지에서는 단순히 작물 생산만이 아니라 귀농귀촌인 교육과 체험농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촌 어메니티 증진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2016년 목표	진행	2017년 목표
농지살림운동을 적극 실행하여 한살림다운 생산기반을 보전한다	50%	지속

농지살림운동의 시작은...

2015년 한살림 흥천생산자연합회의 한 생산자가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내놓은 유기농 논 800평(약 2,545㎡)을 한살림성남용인 조합원들이 나서서 구입하는 '농지 지키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한살림에 16년간 쌀을 공급해온 이 논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진행한 이 사업의 총 출자금 목표는 8,000만원이며, 출자자들에게는 3년에 걸쳐 매년 쌀 20kg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말까지 298명의 조합원과 5개 단체가 참여하여 농지를 구입하였으며 이 농지에서 생산된 쌀을 출자에 참여한 조합원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한살림성남용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농지살림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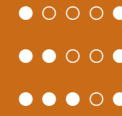
한살림 논 지키기의 첫 씨앗을 심습니다.
 흥천 명동리 한살림 유기농 논 800평이 관행농으로 전환될 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6년 동안 한살림 쌀을 생산했지만 생산자분이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살림 유기농 논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로 이루어 낸 한살림의 자산이기에 '한살림 논 지키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심지일만 출자로 생명의 쌀이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함께 마련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출자 신청 → 출자금 납부 → 쌀로 출자금 상환

한살림 논을 한살림 생산자에게
 한살림 생산자의 40%가 일대만 농지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땅을 일구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서 일군 땅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살림성남용인 조합원과 흥천 지역 생산자들이 함께해요!
 이번에 매입하는 논은 한살림성남용인 조합원이 출자하고 '미래뜰명농조합'에서 소유, 관리합니다. 미래뜰명농조합은 2005년 흥천 생산자들이 모여 설립하였으며 생명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들 이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친환경 농지
 친환경 농사의 어려움과 생산자 노령화 등의 이유로 해마다 친환경 농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약에 물든 땅이 유기농 논으로 전환되는데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06. 부록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제 6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5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6(당)기		제 5(전기)	
	금액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20,516,463,685		17,791,156,565	
(1) 당좌자산	17,678,103,956		15,064,842,562	
현금	4,532,400		346,160	
보통예금	5,140,707,747		4,145,678,356	
정기예금	846,138,289		0	
외상매출금	11,195,278,342		10,624,932,772	
대손충당금	111,952,784	11,083,325,558	83,346,750	10,541,586,022
단기대여금	0		0	
미수금	559,795,374		280,485,214	
대손충당금	0	559,795,374	0	280,485,214
선급금	16,204,304		26,266,920	
선급비용	4,003,674		9,437,930	
부가세대급금	0		0	
선급법인세	23,396,610		61,041,960	
전도금	0		0	
(2) 재고자산	2,838,359,729		2,726,314,003	
상품	2,838,359,729		2,726,314,003	

과목	제 6(당)기		제 5(전기)	
	금액		금액	
II. 비유동자산	29,703,040,639		30,133,123,382	
(1) 투자자산	2,360,383,258		1,909,926,800	
특정현금과 예금	10,456,458		0	
관계회사 출자금	2,349,926,800		1,909,926,800	
(2) 유형자산	25,787,668,516		26,770,159,442	
토지	9,314,199,242		9,314,199,242	
조경수	12,631,920		12,631,920	
건물	17,576,388,403		17,576,388,403	
감가상각누계액	2,494,613,202	15,081,775,201	1,922,702,294	15,653,686,109
구축물	388,123,899		388,123,899	
감가상각누계액	41,670,571	346,453,328	28,432,274	359,691,625
시설장치	3,636,756,952		3,439,929,083	
감가상각누계액	2,882,010,014	754,746,938	2,352,882,377	1,087,046,706
기계장치	489,584,200		489,584,200	
감가상각누계액	432,724,108	56,860,092	369,117,909	120,466,291
차량운반구	425,576,699		443,132,582	
감가상각누계액	389,045,438	36,531,261	359,901,014	83,231,568
비품	886,033,919		794,538,791	
감가상각누계액	741,163,385	144,870,534	655,332,810	139,205,981
건설중인자산	39,600,000		0	
(3) 무형자산	805,353,865		786,948,390	
소프트웨어	805,353,865		681,002,190	
개발중인(소프트웨어)	0		105,946,200	

과목	제 6(당)기	제 5(전기)
	금액	금액
(4) 기타비유동자산	749,635,000	666,088,750
임차보증금	749,305,000	449,305,000
예치보증금	330,000	300,000
장기미수금	0	216,483,750
자산총계	50,219,504,324	47,924,279,947

[부채]		
I. 유동부채	23,939,082,357	21,474,067,077
외상매입금	16,492,806,917	16,471,696,721
미지급금	2,307,436,556	2,280,399,465
예수금	0	27,932,030
선수금	0	0
가수금	0	0
부가세예수금	0	0
단기차입금	2,000,000,000	1,000,000,000
미지급법인세	14,172,440	20,071,100
미지급비용	1,881,451,735	1,562,120,029
선수수익	3,125,090	0
유동성장기부채	600,000,000	0
가격안정충당금	640,089,619	111,847,732
II. 비유동부채	4,999,500,000	6,437,233,750
장기차입금	4,737,500,000	5,958,750,000
임대보증금	262,000,000	262,000,000
퇴직급여충당금	0	0
장기미지급금	0	216,483,750
부채총계	28,938,582,357	27,911,300,827

과목	제 6(당)기	제 5(전기)
	금액	금액
[자본]		
I. 자본금	14,182,640,000	13,200,440,000
자본금	1,559,840,000	1,559,840,000
출자금	100,000,000	100,000,000
출자금(보통재산)	12,522,800,000	11,540,600,000
II. 자본잉여금	1,188,637,060	1,188,637,060
주식발행 초과금	1,188,637,060	1,188,637,060
III. 자본조정	0	0
감자차손	0	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V. 이익잉여금	5,909,644,907	5,623,902,060
법정적립금임의설정	440,205,315	423,965,963
임의적립금	3,457,443,563	3,559,072,154
가격안정적립금	734,290,557	363,334,146
미처분 이익잉여금	1,277,705,472	1,277,529,797
당기순이익 285,742,847원		
※ 전기이익잉여금내역		
전기(15) : 285,567,172원		
전기(14) : 776,576,063원		
전기(13) : 1,618,038,209원		
전기(12)감자차손 : -122,281,742원		
전기(11) : 794,436,630원		
전기(10)감자차손 : -535,113,700원		
전기(10) : 1,117,835,553원		
전기(09) : -59,402,752원		
전기(08) : 539,405,926원		
전기(07) : 255,965,268원		
전기(06) : 87,237,098원		
전기(05) : 416,910,375원		
전기(04) : 21,361,315원		
전기(03) : 126,644,636원		
전기(02) : 179,105,118원		
전기(01) : 121,616,891원		
자본총계	21,280,921,967	20,012,979,120
부채 및 자산총계	50,219,504,324	47,924,279,947

■ 손익계산서

제 6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5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6(당기)	전년비 증감율 (%)	제 5(전기)
	금액		금액
I. 매출액	312,389,755,783	5.99	294,723,852,372
상품매출	311,707,693,783	5.99	277,323,760,777
임대료수입	682,062,000	5.73	195,000,000
기타매출			0
II. 매출원가	281,485,817,044	5.47	266,875,128,590
상품매출원가	281,485,817,044	5.47	266,875,128,590
기초상품재고액	2,726,314,003	35.13	2,017,582,832
당기상품매입액	282,077,551,544	5.21	268,102,280,504
타계정대체액	479,688,774	-7.47	518,420,743
기말상품재고액	2,838,359,729	4.11	2,726,314,003
III. 매출총이익	30,903,938,739	10.97	27,848,723,782
IV. 판매비와 관리비	30,644,035,152	10.77	27,664,741,861
직원급여	4,203,113,433	10.45	3,805,328,540
상여금	1,052,446,080	5.60	996,638,020
일용인부임	2,662,044,426	-8.44	2,907,327,470
퇴직급여	647,642,181	-16.11	772,047,679
복리후생비	837,148,355	-7.42	904,287,279
여비교통비	77,924,137	16.07	67,136,819

과목	제 6(당기)	전년비 증감율 (%)	제 5(전기)	
	금액		금액	금액
업무추진비	37,283,199	1.62		36,687,899
통신비	109,091,193	17.71	2,017,582,832	92,676,817
수도광열비	385,200,154	0.31	268,102,280,504	383,999,706
세금과 공과금	1,444,436,607	12.48	518,420,743	1,284,178,217
감가상각비	1,430,200,466	-26.56	2,017,582,832	1,947,375,250
지급임차료	268,251,290	24.37	268,102,280,504	215,685,233
수선비	66,265,284	74.26	518,420,743	38,027,708
보험료	32,667,017	-27.52	2,017,582,832	45,067,394
차량유지비	106,433,517	-14.87	268,102,280,504	125,027,064
운반비	7,512,038,975	17.15	518,420,743	6,412,325,321
도서인쇄비	147,689,073	-3.25	2,017,582,832	152,652,747
포장비	350,133,443	-38.73	268,102,280,504	571,487,757
소모품비	771,912,970	19.38	518,420,743	646,617,585
지급수수료	878,866,499	14.51	2,017,582,832	767,475,644
대손상각비	28,878,033		268,102,280,504	0
건물관리비	127,422,384	45.05	268,102,280,504	87,847,424
무형자산상각	515,283,796	12.24	518,420,743	459,075,634
잡비	32,731,152	-22.87	42,437,771	
회의비	159,169,872	1.23	157,232,587	
인력관리비	99,371,527	5.69	94,018,474	
홍보비	1,211,286,197	25.76	963,157,134	
연대활동비	54,552,812	11.10	49,100,673	
조사연구비	24,894,227	275.43	6,630,900	
소분용역비	3,708,357,601	69.38	2,189,408,499	
물품검토 선정비	168,621,487	-25.35	225,881,403	
교육비	168,053,372	5.83	158,801,646	

과목	제 6(당)기	전년비 증감율 (%)	제 5(전)기
	금액		금액
조직지원비	57,445,101	211.11	18,464,316
교육행사비	199,681,898	292.19	50,914,501
외주용역비	1,067,497,394	7.86	989,720,750
예비비	0		0
V. 영업이익	259,903,587	41.27	183,981,921
VI. 영업외수익	1,056,269,479	18.05	894,783,268
이자수익	32,385,428	-2.71	33,288,879
배당금수익	2,356,349		0
대손충당금 환입액	271,999	-68.29	857,797
국고보조이익	61,874,910	-18.59	76,000,000
유형자산 처분이익	1,725,271	767.82	198,805
자산수증이익			0
법인세 환급액			42,796,250
기타 수입	481,279,533	7.27	448,678,755
잡이익	439,412,906	49.99	292,962,782
전기오류 수정이익	36,963,083		0
VII. 영업외비용	1,016,257,779	31.45	773,126,917
이자비용	207,890,140	-30.05	297,188,484
기부금	7,900,000	4.07	7,590,940
유가증권 처분손실	0	-100	66,470
재고자산 감모손실	162,265,613	-41.69	278,259,872
가격안정충당부채전입	528,241,887	372.29	111,847,732

과목	제 6(당)기	전년비 증감율 (%)	제 5(전)기
	금액		금액
유형자산 처분손실	594,610	301.90	147,951
지원사업비 (국고보조)	17,300,000	-42.33	30,000,000
외부지원 사업비	44,396,339	57.05	28,268,131
법인세 추납액	29,420,510	127.79	12,915,660
잡손실	18,248,680	166.76	6,841,677
VIII. 경상이익	299,915,287	-1.87	305,638,272
IX. 특별이익	0		0
X. 특별손실	0		0
XI. 법인세차감전 이익	299,915,287	-1.87	305,638,272
XII. 법인세 등	14,172,440	-29.39	20,071,100
법인세 등	14,172,440	-29.39	20,071,100
XIII. 당기순이익	285,742,847	0.06	285,567,172



((GRI G4 인덱스))

-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제언하는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신 버전인 GRI G4의 표준에 대응한 한살림의 활동을 표기하였습니다.

GRI G4		보고서 내용
1. 일반표준 공개		
A. 전략 및 분석	G4-1 Core	지속가능성과 조직과의 관계 및 전략에 대한 최고의사결정자 또는 의장의 성명서
	G4-2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향과 기회요소
B. 조직 프로필	G4-3 Core	조직명
	G4-4 Core	주요 브랜드, 제품, 서비스
	G4-5 Core	본사 소재지
	G4-6 Core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국가에 소재한 주요 사업장의 이름
	G4-7 Core	조직 소유 형태와 법적 형태
	G4-8 Core	시장 영역 보고 (지리적 분할, 서비스 분야, 고객유형 및 수혜자 등)
	G4-9 Core	조직 규모 (노동자 수, 사업장 수, 매출액, 자본, 제품과 서비스 등)
		a. 계약형태 및 성별 전체 근로자 수
		b. 고용유형 및 성별 정규 근로자 수
		c. 성별에 따른 직원과 관리직 수
	G4-10 Core	d. 지역과 성별에 따른 총 인력 수
		e. 조직 업무의 일부가 정규직 아닌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나 개인에게 위탁된 경우
		f. 고용 근로자 수의 중요한 변화(계절적 요인 등)
	G4-1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G4-12	공급망
	G4-13	보고기간 동안 조직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 관련 중요 변화
G4-14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명시	
G4-15	가입하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목록	
G4-16	주요 협회 가입 현황 (위원회나 프로젝트, 정기 회비 이외에 상당한 후원 등)	

GRI G4		보고서 내용
C. 중대이슈 및 보고경계	G4-17 Core	조직의 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조직의 리스트
	G4-18 Core	보고 내용 및 범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G4-19 Core	중대성 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이슈 리스트
	G4-20 Core	조직 내 중대이슈별 보고 범위
	G4-21 Core	조직 외 중대이슈별 보고 범위
	G4-22 Core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의 재인용 효과, 이유
	G4-23 Core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의 재조정
D. 이해관계자 참여	G4-24 Core	이해관계자 목록
	G4-25 Core	이해관계자 파악과 선정 기준
	G4-26 Core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빈도, 보고서 작성에 참여 여부
	G4-27 Core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중대이슈 대응방법과 결과
E. 보고서 프로필	G4-28 Core	보고기간
	G4-29 Core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G4-30 Core	보고주기
	G4-31 Core	보고서에 관한 문의처
	G4-32 Core	GRI 인덱스
	G4-33 Core	외부검증 등
F. 거버넌스	G4-34 Core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 거버넌스 구조, 관련 위원회 파악
	G4-35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고위 임원 및 기타 근로자에게 경제, 사회, 환경적 주제에 대한 권한 위임하는 절차
	G4-38	최고 거버넌스 기구 및 위원회 구성
	G4-39	CEO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의장을 겸임하는지 여부
	G4-40	최고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추천 과정 및 선정 기준
	G4-42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조직의 목적, 가치, 미션, 전략, 정책, 목표 등에서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의 역할
	G4-45	경제, 사회, 환경 영향 및 리스크, 기회 관리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G4-46	경제, 사회, 환경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기구의 역할과 영향력

GRI G4		보고서 내용
2. 특정표준(주제별 세부지표)		
G.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Core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윤리강령, 행동규범 등 한살림운동의 지향, 한살림생산자의 다짐
	G4-DMA	a. 중대이슈로 선정된 이유 b. 중대이슈 관리 방법 c. 관리체계 평가 이해관계자 중대성 평가 결과
경제		
경제성과	G4-EC1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재무제표
	G4-EC2	기후변화가 조직 활동에 미치는 재무 및 기타 위험과 기회 생산안정기금운영
	G4-EC3	연금제도에서 사측 부담 범위 복리후생
	G4-EC4	정부 재정지원 보고기간 내 정부 재정지원 없음
간접 경제효과	G4-EC7	공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돌봄활동
	G4-EC8	간접 경제 영향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효과
환경		
에너지	G4-EN2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G4-EN3	조직 내 에너지 소비 해당사항 없음
	G4-EN6	에너지소비 감축량 해당사항 없음
	G4-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감축량 해당사항 없음
생물다양성	G4-EN11	보호지역 내외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그 인근에 서 소유, 임대, 관리하는 사업장
	G4-EN12	보호지역 내외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관련 활동 과 영향 생물다양성 증진
	G4-EN13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GRI G4		보고서 내용	
배출	G4-EN15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G4-EN16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G4-EN19	온실가스 배출 감축	
	G4-EN20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	해당사항 없음
	G4-EN21	NO, SO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해당사항 없음
제품 및 서비스	G4-EN27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 활동 성과	온실가스 감축
	G4-EN28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G4-EN29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 건수	
공급망 환경평가	G4-EN32	환경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공 세 알을 심는 사람 : 생산자
	G4-EN33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해당 공급망 없음
사회			
노동관행 및 노동권			
고용	G4-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수 및 비율(연령, 성별, 지역)	
	G4-LA2	주요 사업장 별 임시직 또는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 후생	한살림의 주춧돌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G4-LA16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건수	한살림의 주춧돌
사회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G4-PR3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 비스 비율	건강한 식문화 확산
	G4-PR4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관련 법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 한 횟수	
	G4-PR5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부엌에서 세상을 만나다 : 조합원

■ 주요 협회 및 연대단체 가입현황*

국민농업포럼	전국귀농운동본부
논습지네트워크	지학순정의평화기금
무위당을기리는모임	친환경학교급식물뿌리국민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연대모임	탈핵국민행동
생협전국연합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호혜를위한아시아민중기금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씨알재단	희망재단
GMO반대 전국행동	

■ 한살림이 지지하는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선언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은 해당 조직이 가입하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현장, 원칙, 이니셔티브 목록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1989년 발표된 ‘한살림선언’을 조직의 핵심적인 철학적 방향과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이밖에도 시민들과 함께한 ‘탈핵 시민실천선언’(2012), 조합원과 함께한 ‘우리쌀지키기 5000인 선언’(2014) 등을 지지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1995),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농업현장’(2015),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의 ‘유기농 3.0’(2015) 등을 지지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살림연합



조직명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법인형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재지 서울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번지 서초월드 4층
안성사무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 1526
주요제품 친환경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사업지역 대한민국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의 유기적 세계관과 협동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 문명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탐구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세미나 및 포럼,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를 위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주소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3층
연락처 02. 6931. 3604
홈페이지 <http://mosim.or.kr>



지속가능성 지표로 본 한살림운동

발행인 황도근
발행일 2017년 3월 3일
발행처 모심과살림연구소
기획 지속가능성보고서 연구모임(하만조, 김현, 강용국, 함명수)
집필·정리 하만조
편집 디자인 한송(loros@naver.com)



지속가능성
지표로 본
한살림운동